

정부 '낙관론' 퍼지만 경제 4분기 살얼음판

3분기 마이너스 성장' 뚫고 반등
文대통령 "4분기 성장세 이어갈 것"
코로나·美 대선 등 대외 리스크 확대
되살아나는 수출에 악영향 우려

한국 경제가 올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뚫고 반등했지만 4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유럽과 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힘을 못 쓰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겨울 회복세로 전환된 수출이 다시 꺾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2분기 급격한 위축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난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있지만,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1.3% 초과 달

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3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9% 증가한 데다 지난달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5.6%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상품권,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에도 3분기 민간소비가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기 때문이다. 8월 수도권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뼈아프다. 최근 상황은 8월보다 나아졌으나, 매일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가전 성장세를 이끌었던 '집콕 수요'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진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무엇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미·중 무역갈등, 미 대선 등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이 상황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도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분기 성장을 반등이 수출 때문만은 아니고, 소비·투자 등 내수 전반에서 내성이 생긴 것 같다.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146만대>

배출가스 5등급 車 수도권 못다닌다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배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겨울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올해 3월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법 개정 지연으로 흐지부지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987년 이전 생산된 중소형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차량이다. 중소형 경우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출시된 차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대형차는 유종에 상관없이 2000년 이전 출시 차량은 모두 포함된다.

해당 차량을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등록해 조치 신청을 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이나 저소득층 보유 차량도 제외된다. 현재 전국 5등급 차량은 178만 대로, 이 중 제외 차량을 빼면 146만 대가 단속 대상이다. 조맹래 환경부장관은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인 '3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수도권 외 6개 특별·광역시로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절관리제에서는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20%, 황산화물 35%, 질소산화물 12%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구체적 감축 목표도 제시됐다. 주요 5개 항만에서는 선박저속운행 프로그램 참여를 50%까지 끌어올리고, 전국 160개 대형사업장은 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석탄발전의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을 전제로 가동을 최대한 중시한다. 구체적 정치 기수는 이달 중 '동절기 전력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이명박 251일 만에 재수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그는 4평 남짓한 동부구치소 독거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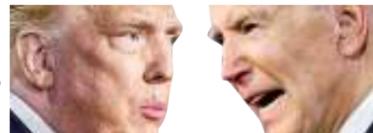
오늘 美 대선...

2020 미국의 선택

뉴햄프셔주 디스빌노치서 첫 투표
플로리다 등 경합주 6곳 승패 변수
트럼프 승리선언 가능성에 혼란 예상

미국 역사상 가장 불확실하고 우려스러운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수 끝에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의 장장 22개월 동안의 대선 레이스가 3일(현지시간) 막을 내린다. 지킬 것인가, 되찾을 것인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CNN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의 산골 마을인 디스빌노치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투표가 진행돼 4일 오전 1시(한국시간 오후 3시) 하와이와 알래스카



누가 웃을까

를 끝으로 투표가 종료된다.

3일 투표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다. 이날 선출된 선거인단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라는 대선 후보에게 12월 14일 투표하게 된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다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 가능성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는 대선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당선인 윤곽이 나오지만 올해는 3일 당선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편투표 탓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유권자 중 1억 명이 가까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우편투표는 개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린다. 투표일인 3일자 소인만 찍혀 있으면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인정하는 주가 22곳에 달해 승

패를 가리는 데 최소 열흘에서 길게는 수주까지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나마 핵심 경합주 6곳 중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이미 우편투표 개표, 서명 날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우편투표 개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초기 승자를 가늠해볼 지역으로 꼽힌다. 플로리다주가 개표 초반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리다는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29명)이 걸려 있다. 플로리다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에 투표가 끝나자마자 현지 언론매체가 출구조사와 사전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측이 선거 당일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사회는 대선 후 더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대선을 훌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 "잘못된 뉴스"라고 부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스킨앤스킨 고문>

"옵티머스 투자처 골든코어 실소유주는 유현권"

법원, 추정보전 이의소송서 밝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를 자회사인 골든코어 실제 소유주가 유현권(39·구속기소) 스킨앤스킨 고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골든코어의 실소유주를 유 고문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골든코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골든코어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골든코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봉현물류단지 개발사

업을 추진한 회사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봉현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예상 차익은 최소 1680억 원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 고문에 대한 추정보전액 75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골든코어 계좌를 대상으로 추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골든코어의 예금 채권이 사실상 유 고문에 귀속된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정보전 명령을 내렸다. 유 고문은 올해 2월 골든코어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라며 추정보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골든코어는 유 고문에 대한 추정보전 명령인 데 자사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골든코어는 현재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불리는 트러스트와 관련해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유 고문은 2018년 11월 트러스트에 골든코어 주식 전부를 86억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유 고문이 골든코어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고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트러스트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 주식 매매 대금 거래는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유 고문이 봉현물류단지 인근의 농지인 진입로를 소유하고 있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성지건설 전환사채(CB)를 인수한 사실 등도 유 고문이 골든코어 실소유주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김충용 기자 deep@

“난이도 ‘핑이’ 전망... 달라진 고사장 환경 적응을”

대학수학능력시험 D-30... 입시전문가 제언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수능 당일까지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마무리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전과는 다른 고사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한다.

◇“방역 지침 따른 환경 변화 연습”=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에 따라 수능에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일반 수험생은 일반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다만 벨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안 된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별도시험실에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시험장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서 수험생이 시험에 집중하는 데 장애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당일 착용하는 마스크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마무리 전

중위권, 1~2개 문항에 등급 변화 성적 향상 쉬운 탐구영역 공략을 어려워했던 부분 중심으로 내용 정리 마스크·책상 가림막 등 훈련 필요

략 중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시험장 책상마다 가림막이 설치된다는 점도 예년과 달라진 환경이다. 임 대표는 “가림막으로 시험지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 지문을 읽는데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크기(8절지)의 모의고사로 충분히 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탐구영역, 짧은 시간 성적 올리기 쉬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짧은 일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문에 국어와 수학영역에 비해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기 좋은 탐구영역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특히 3~4등급의 중위권 수험생이라면 탐구영역에서 1~2개 문항만 더 맞으면 등급이 바뀌거나 백분위 점수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남은 기간 탐구영역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탐구영역을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로 반영한다. 사회탐구영역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려는 수험생이라면

한 문항이라도 틀리면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학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되, 건강관리 유의”= 올해 9월에 지원했던 수시모집 1단계 결과 발표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정 대학에 수시 1단계에 합격한 상태라도 수능 점수가 필요한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재학생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학습량이 줄어든 데다 ‘재수생 강세’라는 전망 때문에 더 초조할 수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지난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봤을 때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기본에 충실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평이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예측한다”면서 “그렇더라도 학습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은 어려운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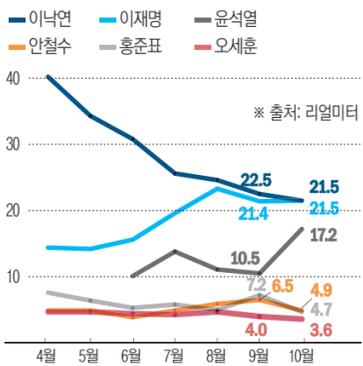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능 시험을 한 달 앞둔 지금부터는 당일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면서 마무리 공부를 잘해야 한다”며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능에는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 등은 지난해와 같은 70% 수준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윤석열, 대권 선호도 17.2%... 이낙연·이재명과 '3강 구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단위: %) ※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1.9%p)



선두에 4.3%p 차이 턱밑 추격 국감 후 보수·젊은층 지지 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7.2%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2파전 양상을 띠던 차기 대권 형국에 윤 총장이 치고 올라오면서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일 공개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전월 대비 6.7%포인트(P) 상승한 17.2%를 기록했

다. 21.5%로 공동 선두를 차지한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p) 바로 바깥인 4.3%p로 추격했다. 특히 윤 총장은 응답자 특성과 크게 상관없이 모든 층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과 경기에서 8.3%p, 부산·울산·경남에서 7.7%p, 대구와 경북에서 7.1%p로 크게 상승했고 광주와 전라에서도 4.7%p 올랐다. 이 대표가 부산·울산·경남에서 5.8%p, 대구·경북에서 3.0%p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나이별로는 윤 총장은 30대에서 8.7%p, 18~29세에서 7.7%p 상승했다. 반면 이 대표는 30대에서 5.3%p, 18~29세에서 2.4%p 하락했고 이 지사

는 18~29세에서 1.1%p 떨어졌다.

윤 총장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의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국감 당시 퇴임 후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그동안 2파전 양상을 띠던 차기 대권 형국이 3강 구도로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결과를 두고 “이낙연·이재명·윤석열 세 주자가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총장의 리스크가 여

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검찰총장이니 화제의 중심”이라며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겠다고 하면 정쟁도 벌어지고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 검증해 본 적이 없으므로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시작한 후 공개 외부활동을 이어가며 일선 검사들과 접촉을 늘리는 모양새다. 3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리는 ‘부장검사 리더십’에 참석해 초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 후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 윤 총장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 측근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할 말을 다했다”며 선을 그었다.

박준상 기자 joooon@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Q-Net
자재의 모든 것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WORLDJOB+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청년취업아카데미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

인적자원개발의 즐거운 조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보복 소비 폭발하자마자...코로나發 수요 한파

‘2차 대유행’ 실적 반등에 걸림돌
각국 부양책·집콕 수요 이미 소진
美·印 등 공장 셧다운 우려 가중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비재 사업 실적이 'V'자 반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가 살아난 덕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셧다운 우려, 유통 공급망 차질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기업들의 4분기 실적 걸림돌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록다운(폐쇄), 지지부진한 경기부양책, 집콕(집에만 있는) 수요 기소진 등이 꼽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펜트업(pent up·억눌린)' 수요 폭발로 3분기 생활가전, TV, 스마트폰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은 2016년 2분기 영업이익(1조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실적(3분기 영업이익 1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 LG전자는 H&A(생활가전) 사업본부가 분기 사상 최고 매출액인 6조1558억 원을 기록했다. HE(TV) 사업본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3조6694억 원의 매출액을 거뒀다.

스마트폰 수요도 폭발했다.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50%가량 늘어나며, 영업이익 4조4500억 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LG전자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는 실적 개선

세를 보이며 적자 폭을 좁혔다.

관건은 4분기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외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연쇄 셧다운을 경험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인 인도 노이다 공장을 비롯해 냉장고 등 인도 가전 생산라인을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 TV 공장도 브라질 공장을 비롯해 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 등 유럽 지역 모든 공장을 닫았다.

LG전자는 인도 가전제품 공장을 비롯해 러시아 가전·TV 공장, 브라질 TV·에어컨 공장, 미국 세탁기 공장, 미국 자동차부품 공장 등이 가동을 멈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생산라인이 갖춰진 미국과 유럽, 인도 모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4분기 언제든 다시 생산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각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도 쉽지 않아 보인다. 3분기까지 각국의 경기 부양 효과와 국내의 경우 에너지 으뜸효율 가전 제품 환급사업 등에 힘입어 소비재 시장이 견인돼 왔지만, 재정 부담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경기부양책 협상 교착 상태 지속 등이 경기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5차 경기부양책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최우선 논의의제로 꼽히지만, 경기부양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업계는 크게 우려한다.

연택트 수요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해온 반도체도 4분기 전망은 어둡다. 메모리는 첨단공정 전환 확대와 모바일·노트북 수요 견조세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른 서버 가격 약세와 신규 라인 초기 비용 등으로 수익성 감소가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10월 반도체 주요 제품 고정거래가는 하락했고, 현물가격도 완만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는 메모리 업황이 단기 조정 후엔나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분기부터 화웨이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앞두고 3분기 말 긴급 재고 확보에 주력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수요 감소 폭은 제한적이었다.

집콕 수요가 3분기에 이미 소진됐다는 점도 4분기 전망을 어렵게 한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매장 내 집객활동 위축, 연말 쇼핑 시즌 분산, 업체 간 판매 경쟁 심화, 비수기 펜트업 수요 강세 등으로 4분기 가전 시장은 과거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LG전자도 "4분기 글로벌 생활가전, TV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연말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업계 내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권태성 기자 tskwon@



돌파구는 프리미엄 가전·중저가 폰

LG 롤러블TV·삼성 더 프리미어
중국과 경쟁 피하고 수익성 방어
스마트폰, 인도·중남미 공략 가속

'실적 고비'가 예상되는 4분기를 넘어서기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략은 부문별로 상반된다.

가전의 경우 수익성 강화를 위해 고가 제품군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폰은 중저가 제품을 각기 다른 국가에 적기에 내놓으면서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22일 프리미엄 가전을 총괄한 'LG 오브제 컬렉션'을 새로 선보였다. 상냉장·하냉동 냉장고·위스타워·스타일러 등 11종 신제품을 내놓고, 향후 제품군을 추가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 세계 최초 롤러블 TV도 내놨다. 가격만 1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4분기 들어 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겨냥,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를 출시했다. 생활가전에서 프리미엄 가전을 총칭하는 '비스포크' 라인 제품들이 다양한 용량과 사양으로 소비자를 만났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에선 플래그십 집중도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플래그십 제품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보급형 제품 출시가 이뤄졌다면, 올해는 보급형 제품군과 출시 일자를 국가별로 다르게 짜며 점유율 쟁탈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인도를 집중 공략 중이다. 아직 피쳐폰 보급률이 높다는 점에서 신규

수요가 여전히 창출될 수 있는 데다,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화웨이·샤오미 등 주요 중화권 경쟁업체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점도 기회다. 실제로 삼성전자 인도법인인 지난달 초 다른 나라에선 출시하지 않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F41'을 따로 시장에 내놨다. 인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트'와 협업하는 등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샤오미를 누르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상태에서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LG전자의 경우 지난달 28일 보급형 제품 Q 시리즈 'LG Q52' 판매를 시작하며 중저가 제품군을 확대했다. 올해 출시된 Q 시리즈의 다섯째 제품이다. 해외시장에 선 중남미로 눈을 돌렸다. 경쟁사 점유율이 높아 공략이 어려운 시장을 제외하고, 화웨이 반사이익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점쳐지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뒤바뀐 글로벌 소비심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록다운(봉쇄)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며 집안일을 돕는 다양한 가전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펜트업 수요'가 형성됐지만, 스마트폰 구매에선 이전과 다르게 지갑을 여는 데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대거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저가 가전에서 중국업체의 '몰량 공세'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도 가전 고급화 전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리미엄 가전은 판매량이 일반 가전에 비해 줄더라도 ASP(평균 판매가격)가 높아 수익성 방어에 효과적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전북현대모터스 2020 K리그, 8번째 우승

리그 4연패의 새로운 역사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응원으로 이루어 낸 쾌거입니다. 우승의 기쁨이 여러분의 지원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전북현대는 이 역사를 함께 한 이동국 선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겠습니다.

K신차 효과 '주춤'... 토요타·폭스바겐 등과 '생존게임'

업계 C소크 벗어나 경쟁 심화
현대기아차 美 점유율 감소세
각국 자국 메이커 보호도 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산 중단과 판매량 붕괴 등 부침을 겪었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제2의 팬데믹을 포함한 갖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4분기부터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9월 현대차(4.2%)와 기아차(4.1%)의 미국시장 합산 점유율은 8.3%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만 올해 4월 들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신기록(9.4%)을 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지 시장 경쟁 심화가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들어 5-8월 코로나19 쇼크로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내수 활성화에 맞춰 국내 공장을 부지런히 돌렸다.

이 기간 내수 판매 활성화는 물론, 수출 물량도 원하는 만큼 뽑아냈다. 덕분에 여전히 코로나19 쇼크에 빠져 허우적대던 경쟁사보다 시장 방어에 성공했다. 나

아가 일찌감치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 경쟁사의 회복세가 완연해지면 세계 시장 곳곳에서 현대·기아차와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시작한 현대차의 신차효과는 올해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9월 점유율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 그나마 기아차의 신차효과가 올해부터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점유율이 0.6%포인트 증가했다.

경쟁사 대비 신차효과가 뚜렷해 코로나19 쇼크를 일부 반감했으나 이 효과가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쟁사들이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부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차가 호실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국내의 판매는 총 70만782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한 수치다.

신차효과를 누린 기아차, 한국지엠의 내수 및 해외 판매가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현대차와 르노삼성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가 내년 초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앞세워 자동차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 메이커 보호조치도 한국차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올 4분기 한국차에 대한 전망에 신중한 자세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4분기 현대차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조5395억 원과 1조7931억 원 수준이다. 전년 대비 6.5%와 47.9%씩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아차의 경우 매출은 17조2726억 원, 영업이익 1조448억 원이 점쳐진다. 각각 전년 대비 7.2%와 69.6% 증가한 규모다.

양사 모두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근 잇따라 선보인 신차효과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쟁사(토요타와 닛산, 폭스바겐 등)가 잇따라 신차를 선보일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 위축에 따른 실적 하락이 우려된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국차가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판매 정점이 지나는 '피크 오버(Peak Over)' 현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약 2년 동안 대대적인 신차가 쏟아진 이후 상대적으로 신차 절벽기가 길게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유창욱 기자 woo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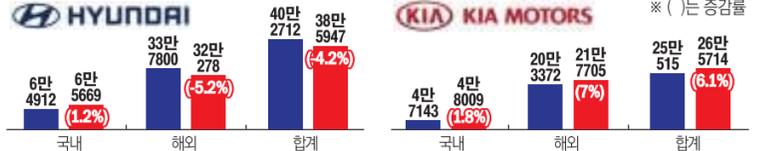
현대기아차 미국 점유율 추이(단위: %)

※ 출처: 오토모티브뉴스



현대기아차 10월 국내외 판매 실적(단위: 대)

※ 출처: 각사 ※ ()는 증감률



이커머스 잔치에도 오프라인 불안한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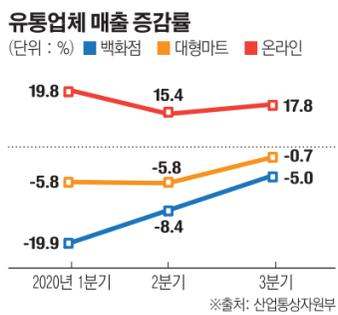
올 3분기 유통업계 실적은 예상외로 선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유통인구 감소라는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보복소비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3분기 어닝쇼크는 기우로 끝났다. 그러나 4분기에도 이 같은 3분기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물론 호재는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면세품 상시판매가 허용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집콕 생활이 장기화하면서 언제 지갑을 닫을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3분기 선방은 기저효과 덕? =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화점의 3분기 매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5.0% 하락했다. 1분기(-19.9%)와 2분기(-8.4%)에 비해서는 실적 하락폭이 다소 완화됐다. 대형마트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1분기 -5.8%를 기록한 마트는 2분기 -5.5%에 이어 3분기에는 -0.7%로 낙폭을 축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의 이면에는 추석 연휴기간이 10월 초인데 따른 9월 말 추석선물 수요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KB증권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3분기 영업이익은 945억 원으로 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도 트레이더스의 높은 성장세로 3분기 예상 매출은 14% 늘어난 5조7845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26% 치솟은 1461억 원이다.

편의점의 3분기 성적표는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 GS리테일은 올 3분기 매출 2조23488억 원과 영업이익 790억 원을 기록해 각각 1.1%, 12.8% 감소했다. 아직 실적 발표 전인



코세페·면세품 상시판매 호재 실적 상승세 이어질지 미지수
외식업계 매각·구조조정 한창

BGF리테일 역시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언택트 전략을 강화한 이커머스들의 선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의 3분기 매출은 1분기 19.8%, 2분기 15.4%에 이어 3분기에는 17.8%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GS홈쇼핑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94.3% 증가한 2868억 원, 383억 원을 기록하며 집콕수혜업종으로 부상했다.

4분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 면세품 상시판매 허용을 호재로 꼽는다. 여기에 정부의 소비쿠폰 재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둬주에 따라 회복이 엇갈릴 전망이다. 올해 코세페는 지난해 30일 기준 역대 최대인 1633개 기업이 참가한다. 그러나 언택트 소비가 익숙한 이들이 늘면서 코세페 역시 이커머스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식품업계 고공비행, 외식업계 타격

=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는 올 들어 회복세가 크게 엇갈렸다. 집밥 증가에 따라 식품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는 매각과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품업체는 가정간편식(HMR) 제품 수요가 증가한 데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판매관리비까지 축소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해외 시장에서도 라면, 만두, 장류, 김치 등 K푸드가 선전하면서 매출 증가세에 힘을 보태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난 6조2639억 원, 영업이익은 42% 증가한 389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심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어난 6521억 원, 영업이익은 99.5% 늘어난 370억 원으로 추정됐다.

주류 시장도 3분기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이 컸다. 주류업체는 식당과 유흥업소가 문을 닫은 데 따른 도미노 매출 감소를 겪었다. 그나마 '홈술' 열풍이 낙폭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됐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지난해 출시한 진로이즈백과 테라의 가정용 판매 증가에 힘입어 주류 업계 가운데 유일한 실적 상승이 기대되지만 다른 주류 제조·유통사들의 상황은 보릿고개나 다름없다. 3분기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571억~6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정용 맥주 시장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남주현 기자 jooh@

글로벌 車 타고 질주... 변수는 셋다운

포스코·현대제철 연말까지 낙관
가격 인상·판매량 정상화 기대



철강업계는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와 가격 인상 폭 제한 가능성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고로사는 3분기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일단 업계는 4분기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포스코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4조2612억 원, 영업이익 6667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2분기보다 각각 3.9%, 297.5% 증가했다. 현대제철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조4616억 원, 영업이익 33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138.6% 늘었다.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는 4분기 철강업계의 실적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5조1577억 원, 영업이익은 7662억 원으로 내다봤다. 현대제철은 매출액 4조7058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4분기 세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산업생산 회복과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동절기 감소 시즌에 돌입하면서 공급량은 둔화하는 반면 수요는 유지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철강사에 긍정적 요인이다.

포스코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4분기는 가격 인상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시기인 만큼 가격 인상과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대제철도 "4분기에는 자동차 관련 판매 물량 정상화와 유통가 인상으로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세계철강협회는 올해 전 세계 철강 수요를 17억2500만 톤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수준이지만 6월 6.4% 감소를 전망했던 것보다는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21년에는 수요가 4.1%가량 증가해 17억9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변수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이다. 미국은 지난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선을 넘어섰으며 유럽에서는 확진자 증가세에 영국, 독일 등이 이달 들어 봉쇄 조치 및 부분 폐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공장 봉쇄 등으로 전방산업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개선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철강업계는 앞서 2분기에 자동차와 전자업계 해외공장이 '셋다운' 되면서 수익 저하를 겪은 바 있다. 포스코는 사상 처음으로 별도기준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수요산업이 부진했고 경기 불확실성은 철강제품 수요 하락으로 이어졌다.

포스코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동차용 강판 수요 급감"이라면서 "해외 모든 자동차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업계는 앞으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있지만, 올해 1분기와 다르다"며 "이전과 달리 각국 방역이 강화됐다. 대규모 록다운(봉쇄 조치)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美대선·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증폭... “산타렐리 없다”



중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 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4분기 국내 증시는 ‘지뢰밭’이다. 지뢰밭 속에서도 ‘진주’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3일(현지시각) 시작하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국내 주식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동학개미’에 유동성도 대비하기 힘들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2~33%)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고수하면서 개미들이 증시를 떠날 채비에 나섰다. 외국인도 최근 한 달간 3453억 원 넘게 팔아 치우며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렇다고 약재만 있는 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 조짐과 긍정적인 내년 경기 전망 등 호재가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곳곳에 숨어 있는 지뢰를 피하면서 종목을 ‘육식’을 가려 투자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벤트가 펀더멘털 이길 수 있을까’ =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선이다.

2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산타렐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연말 증시 전망

<p>“예년 수준의 산타렐리 기대하기 어려워”</p> <p>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산에 국내 양도세 이슈 영향 클 것 - 내년 초,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후 회복할 전망 	<p>“코로나19 재확산으로 증시 상당 제약받을 것”</p> <p>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산타렐리,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봉쇄 조치 강화 여부에 달려 있음 - 미국 소비 지표는 여전히 긍정적 신호 ... 시장 동력 여건은 유호 	<p>“11월 혼조세지만 12월 산타렐리 기대해”</p> <p>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위탁운용총괄(CI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대선 불확실성 해소 및 코로나19 백신 출시 기대감 - 미 대선 당선자에 따른 경기부양책 규모 및 투자 방향에 따른 매수 전략 추천 	<p>“산타렐리 불가능하지 않지만 극적이지 않아”</p> <p>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매크로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주주 요건에 따른 개인투자자 대량 매도 예상 - 미 대선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은 반등 요인
--	--	---	---

각국 봉쇄조치 재개 경제 먹구름 양도세 강화에 개미 떠날 채비 외인 매도... “보수적 전략 필요”

적인 상승세가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을이 깊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폭풍’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 빠져들고 있어 증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각국에선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시 상단은 제약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내년 4월이면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유동성(외국인, 개인 투자자)을 붙잡아 둘 ‘풀 팩터(Pull factor·흡인 요인)’도 약하다.

당장 규제 리스크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은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매크로 팀장은 “일반적으로 12월

에는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 데다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 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았다”고 말했다.

실제 대주주 지정 요건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춘 2017년 12월에도 개인투자자들은 5조1000억 원가량 매도에 나섰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김대준 수석연구원은 “현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외국인 수요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위탁운용총괄(CIO)은 “올 4분기 선불리 저가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미국 대선 이후 경기부양책 규모와 투자 방향에 주목하면서 베팅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실적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을 제시한 주요 코스피 상장사 172곳의 올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34조2893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43%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전략 역시 보수적으로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증시의 방향성을 알기 힘들니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익이 날 때마다 주식을 현금화하고, 새로 증시에 발을 담그더라도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해 리스크를 축소하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며 예금과 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희림 기자 wiseforest@
오예린 기자 yerin2837@

금융권 ‘실적 잔치’ 끝났다 코로나發 ‘부실대출’ 뇌관



국내 금융지주가 3분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 업종에 걸쳐 폐업 위기가 속출하고 있지만, 금융권 회사는 예외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동학개미 운동’, ‘공모주 투자열풍’ 등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자와 수수료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4분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체 등 부실대출 리스크가 4분기와 내년 초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총당금을 늘리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나란히 1조 원의 순이익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신한금융은 3분기당기순이익이 1조144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6% 늘었다. 증권가 예상치(9794억 원)를 2000억 원이나 뛰어넘은 것이다. 분기 순이익 1조 원 돌파는 지주사 설립 이래 처음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2조9502억 원으로 3조 원에 육박했다. KB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 1조1666억 원으로 분기 순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증가한 수치다. 하나금융도 7601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시장 추정치를 19%나 웃돌았다.

금융지주의 실적 선방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도 금융 그룹 계열 증권사들에 주식 위탁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다. 금융 그룹의 계열 증권사 3분기 누적 수수료수익은 KB증권 6801억 원(작년 동기 대비 59.5% 증가), 신한금융투자 5369억 원(43.8% 증가),

회사	3분기 누적	2019년 전체
신한금융	1조504억	9508억
KB금융	7543억	6703억
하나금융	6981억	7559억
농협금융	4409억	3582억
우리금융	5867억	3742억

신한·KB 3분기 순이익 ‘1조 클럽’ 대손충당금 선제적 적립 나서

하나금융투자 3952억 원(37.8% 증가), NH투자증권 7315억 원(63% 증가)으로 1년 사이 최대 63% 급증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촉매 대신 내년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까지 꺾이지 않으면서 장기화되면, 대내외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출 성장에도 한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누적을 거듭하는 코로나19 금융지원도 부담이다. 건전성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내년 3월까지인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조치가 종료되는 직후부터 연장분의 상당부분이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은행권 자본건전성 강화 유도로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는 3분기 대손충당금을 8739억 원을 쌓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45억 원보다 12.8% 늘어난 수치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은 3조5304억 원으로 지난 한 해 3조671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김병근 기자 nova@

회생중소기업 사장님 - 저망은 NO 희망은 ON!

정부, 회생법원, 캠코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회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캠코의 촘촘한 재기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공화당 트럼프 승리 착시현상〉

진흙탕 노리는 ‘레드 미라지’

트럼프, 초기개표로 승리 선언 계획
우편투표 등으로 승패 뒤집어지면
대선 불복·폭동 ‘극심한 혼란’ 야기



미국 대선에서 결과의 쟁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경합주의 표식이다. 현재까지는 야당인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싸움이라는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 대선 당시처럼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거나, 현장 투표를 중심으로 한 초기 개표 결과만을 바탕으로 미리 승리를 선언하는 ‘붉은 신기루(Red Mirage)·공화당 승리 착시 현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시나리오든 혼돈은 불가피해 보인다.

백악관행 열차에 탑승할 가능성이 더 큰 쪽은 바이든 후보 측이다. 우선 1억 명이 가까운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마치면서 바이든 후보의 백악관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최대 일간지 USA투데이는 1일(현지시간) 선거 예측 사이트 ‘미국선거프로젝트’를 인용, 적어도 9200만 명의 유권자가 현장 투표나 우편 투표를 통해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전국 등록 유권자의 10명 중 4명이 이미 투표를 끝냈다는 뜻이다. 4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 현재 사전 투표자 수는 2016년 대선 때 총 투표자 1억 3650만 명의 약 67%가 넘는다. 통상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시작 전부터 무게추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물론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 지지층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일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장려해 왔다. 문제는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50만 명이 나 불어나는 등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경합주에서 바이더스가 거둬들이기 확산, 당일 현장 투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불철처법 번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유권자들의 표심뿐만 아니라 물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야.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16명으로 추정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쪽이 승리를 잡게 된다. 즉 바이든 후보가 대권에 한발 더 앞서 있는 셈이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매직 넘버 270명까지 불과 54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후보 쪽이 6개 경합주(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펜실베이니아·미시건·위스콘신)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절반만 확보해도 승리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트럼프의 경우 6개 격전주를 싸움이하더라도 44명을 더 채워야 한다. 여기에 38명의 선거인단을 거느린 텍사스 주와 나머지 비교적 한 곳을 더 가져와야만 매직 넘버를 채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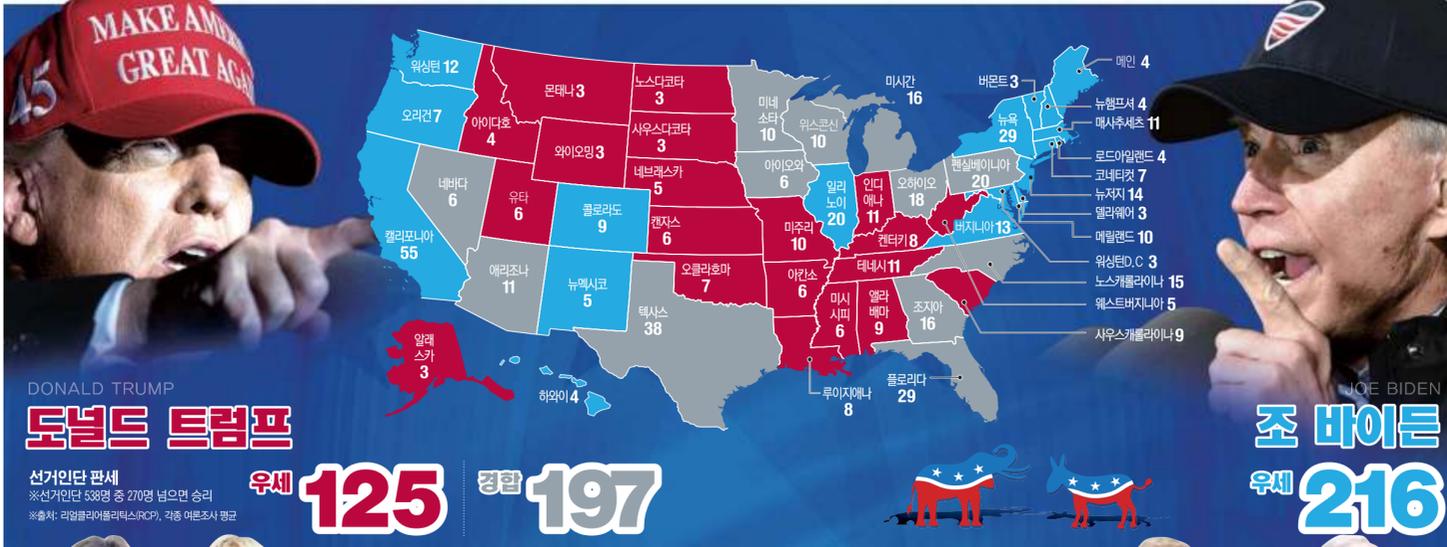
여러모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라는 하지 만, 경을 열어보기 전까지 방심할 순 없다. 격전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데다 최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표를 이어 바자를 가지고 있다. 주요 타깃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으면서도 2018년 중간선거에서 투표를 보류한 ‘트럼프 이탈층’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휘둘리는 부동층 두 부류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부분 격전주에 많은 백인 노동자 계급층으로, 이들의 표를 확보할 경우 백악관 입성의 지름길인 경합주의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개표 결과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경우 초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붉은 신기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우스는 이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 동안 이러한 시나리오는 은밀하게 이야기해 왔다”며 “이 시나리오는 선거일 이라고 보도했다. 우편 투표는 개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장 투표 중심으로 개표가 이뤄져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후 우편 투표 개표가 본격화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결국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경우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즐긴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것에 비춰봤을 때, 이 경우 미국 대선이 소극적 진평을 싸움으로 변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변호선 기자 hsbnyun@



조용하게... 맹렬하게

극과 극 ‘영부인 전쟁’

미국 퍼스트레이디 후보들의 대조적인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만큼이나 눈길을 끈 게 영부인 후보들이다.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왼쪽 사진)와 달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질 바이든은 유세 현장에서 남편 못지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대선이 ‘은둔형’과 ‘활동형’ 퍼스트레이디 후보에 대한 선택이기도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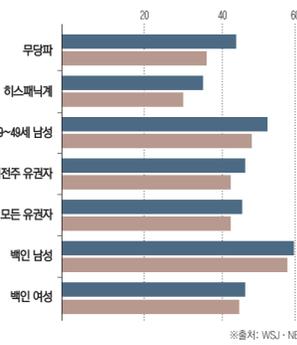
멜라니아는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재선 출사표를 던졌을 때 옆자리를 지닌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 잠깐 얼굴을 비춘 이후 첫 공식 유세 참석 일정이었다던 지난달 20일 펜실베이니아 유세마저 기침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멜라니아는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후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0월 27일 첫 단독 유세에 나섰다. 유세 방식도 조용했다. 남편 곁에 조용히 서 있다가 결국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경우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즐긴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것에 비춰봤을 때, 이 경우 미국 대선

이 소극적 진평을 싸움으로 변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변호선 기자 hsbnyun@

트럼프 입수행과 재선 지지자 비율 (단위: %)



할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질 바이든은 지지 연설 장소로 자신이 평생 몸담아 온 교육 현장을 선택, ‘남편이 당선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미시간주 웨스트랜드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미국이 변화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공교육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퍼스트레이디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홍보했다. 또 “트럼프의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3월 로스앤젤레스 집회에서 연단으로 난입한 여성 시위자를 가로막으면서 남편을 보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 중이던 남편 바이든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며 뒤로 떼어 놓는 모습도 포착됐다. 퍼스트레이디 후보의 편안한 행보가 막판 부동층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서경 기자 0jung2@

공화당 내 엇갈리는 평가 (단위: %) ※ 오차범위: ±5.1%p



채권왕 제프리 건들라흐(왼쪽 사진),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오른쪽), 해지펀드 대가 존 폴슨, 골드만삭스 출신 앤서니 스퀴라무치, 2016년 미국 대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시킨 월가 저명인사들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이들 모두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자를 선언한 이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다. 이번 대선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4년 전 트럼프에게 투표한 미국 투자자사회사 스트래티지스 리서치 파트너스의 제이슨 트레너트 회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4년 전에는 45개 주 고개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감했다”며 “이번에는 승인이 50대 50”이라고 했다. 현재 뉴욕 맨해튼 자택에 틀어박혀 지낸다 그는 이번에는 누구를 지지할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건들라흐 더블린(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예상하면서도 “이번에는 훨씬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스퀴라무치의 경우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유세 현장



‘트럼프 지지’ 부호들도 재선예측엔 ‘묵묵부답’

을 함께 누비며 그의 인기를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당시 그는 트럼프의 대항마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미움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1년 뒤 스퀴라무치는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됐으나 행정부 관리들과의 불화를 노숙시킴으로써 열을 만에 사임했다. 현재 반(反)트럼프 인사로 돌아선 그는 트럼프의 패배를 거의 확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재선 확률을 12분의 1로 봤다. 2016년 여론조사에서는 결과가 들쭉날쭉했지만, 이번에는 몇 달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일관되게 우세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이칸은 지난 대선 이후 일가가 다소 달라졌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의 경기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없고, 트럼프가 취한 조치를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민주당 바이든 압승〉

‘블루 웨이브’ 베풀한 美증시

월가·뉴욕증시 ‘바이든 승리’ 점쳐
코로나·사전투표 등 변수 있지만
“민주당 집권=경제성장” 기대 고조



미국 주식시장과 월가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휩쓸는 ‘블루웨이브’에 베풀하는 분위기다. CNN은 월가의 대선 결과 예측 지표 중 하나인 S&P500지수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청신호를 보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증시, 대선 전 3개월간 내리면 집권당 패배=CFRA리서치에 따르면 S&P500지수는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선 직전 3개월간 0.04% 하락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직전 3개월 동안 S&P500지수가 하락하면 집권당 소속

후보가 승리했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넘어 최고의 도박판으로 떠올랐다. 선거 등 정치 이벤트에 대한 베풀이 허용된 영국에서 판돈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이다. 영국 베풀액인 채드 테트라거러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에 걸린 베풀액은 지난날 29일 기준 2억2000만 파운드(약 3200억 원)로 4년 전 트럼프와 클린턴 대결 당시 기록한 1억9900만 파운드를 넘었다. 영국 당시 지대한 베풀액 기록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의 1억1300만 파운드다. 베풀액은 올해 미국 대선 베풀액이 최종적으로는 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역전극을 펼쳤던 2016년 대선에서 뉴욕증시 예측은 적중했다. 당시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했지만 증시는 하락세였고,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뉴욕증시의 대선 예측도 불과 하루 만에 갈렸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0월 30일 전만 해도 S&P500지수는 3개월간 성적이 플러스(+)+여서 트럼프 승리

로 귀결되는 게 보였다. 지난달 30일 S&P500지수가 1.2%나 빠지면서 ‘바이든 우세’로 나오게 된 것이다.

◇월가 ‘바이든 승리, 경제에 좋을 것’=트럼프는 “민주당이 미국 경제를 멸망시키고 선거에서 승리

하면 증시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월가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블루웨이브’가 경제와 시장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낙관하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의 안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증선 투자자 메모에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휩쓸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최소 2조 달러(약 2271조 원)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인프라와 기후변화, 헬스케어와 교육 등에서 바이든의 장기 재정지출 계획도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나 바이든 후보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증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JP모건체이스의 두브라브코 리코스-부흐스 투자전략가가 이끄는 팀은 7월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11월 승리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중립성 약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경제가 약한 상황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증세가 트럼프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무역전쟁을 둘러싼 발연의 완화, 인프라 지출에 따른 잠재적 이익, 최저임금 상승 등이 증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대선 베풀액 3200억 원=미국 대선은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넘어 최고의 도박판으로 떠올랐다. 선거 등 정치 이벤트에 대한 베풀이 허용된 영국에서 판돈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이다. 영국 베풀액인 채드 테트라거러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에 걸린 베풀액은 지난날 29일 기준 2억2000만 파운드(약 3200억 원)로 4년 전 트럼프와 클린턴 대결 당시 기록한 1억9900만 파운드를 넘었다. 영국 당시 지대한 베풀액 기록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의 1억1300만 파운드다. 베풀액은 올해 미국 대선 베풀액이 최종적으로는 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풀 정보업체 오즈체커의 피터 와트 홍보 책임자는 “베풀액은 영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이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도 활발하게 베풀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미국 대선에 걸린 베풀은 2억 2000만 파운드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며 “미국 대선에 대한 영국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률에 따른 당선 확률을 살펴보면 바이든은 현재 66%, 트럼프는 34%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반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 예측모델을 굴리는 미국 선거 분석업체 파이브시터에이트는 바이든의 승리 확률을 2일 기준 무려 89%로 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대선 사전 투표자가 1억 명이 육박했다. 대선 주자들은 막판까지 유세 현장을 누비며 최종 당락을 좌우할 현장 투표 독려에 열을 올렸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선 전날인 2일(현지시간) 유세지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정했다. 오하이오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이는 곳이다. 선거 분석 사이트 파이브시터에이트 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0.2%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바이든 후보가 0.2%포인트 우세하다고 전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클리블랜드를 찾은 이후에는 또 다른 격전지 펜실베이니아로 돌아와 지지층 단속에 나선다. 바이든 후보는 1일에 이어 2일에 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부터 2차례 유세 현장을 누비며 집권 공약했다. 배카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필라델피아 디가, 존 레덴트 등이 막판 유세에 힘을 보탤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마지막 경합주 4곳을

미국 대선에 앞두고 막판 여론조사 격자구속 공

미국 대선 사전 투표자가 1억 명이 육박했다. 대선 주자들은 막판까지 유세 현장을 누비며 최종 당락을 좌우할 현장 투표 독려에 열을 올렸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선 전날인 2일(현지시간) 유세지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정했다. 오하이오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이는 곳이다. 선거 분석 사이트 파이브시터에이트 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0.2%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바이든 후보가 0.2%포인트 우세하다고 전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클리블랜드를 찾은 이후에는 또 다른 격전지 펜실베이니아로 돌아와 지지층 단속에 나선다. 바이든 후보는 1일에 이어 2일에 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부터 2차례 유세 현장을 누비며 집권 공약했다. 배카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필라델피아 디가, 존 레덴트 등이 막판 유세에 힘을 보탤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마지막 경합주 4곳을

미국 대선에 앞두고 막판 여론조사 격자구속 공

막판 여론조사 “바이든 10%P 리드”

WSJ·NBC “트럼프, 경합주에 확력집중… 격차 6%P로 좁혀”

났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 더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의 중심지였던 위스콘신의 케노샤를 방문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RCP 조사 결과, 바이든이 0.3%포인트 앞서며 초접점을 벌이는 주다. 미시간은 5%포인트 가까이 앞서 있지만,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0.3%포인트 근소한 차로 승리한 곳이라 트럼프 캠프에선 기대할 만한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미시간과 아이오와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노스캐롤라이나를 각각 찾아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섰다.

12개 경합주(△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네바다 △인디애나 △미시건 △오하이오 △애

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WSJ 기준)에선 지지를 격차가 51% 대 45%로 좁혀졌다. 지난날 초에는 바이든이 10%포인트 앞서 있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애틀애틀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펜실베이니아(6%p), 플로리다(3%p), 애리조나(6%p), 위스콘신(11%p) 등 4개 격전주에서 모두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다소 고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51%대 44%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2%로, 42%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모습을 대외화한 전역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12개 경합주(△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네바다 △인디애나 △미시건 △오하이오 △애

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WSJ 기준)에선 지지를 격차가 51% 대 45%로 좁혀졌다. 지난날 초에는 바이든이 10%포인트 앞서 있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애틀애틀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펜실베이니아(6%p), 플로리다(3%p), 애리조나(6%p), 위스콘신(11%p) 등 4개 격전주에서 모두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다소 고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51%대 44%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2%로, 42%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모습을 대외화한 전역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12개 경합주(△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네바다 △인디애나 △미시건 △오하이오 △애

최혜림 기자 rog@

미국 대선에서 주목할 건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다. 상원의 승리 여부에 정책 규모와 금융 시장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월가 전문가들은 상원 선거 결과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원을 모두 가져가는 ‘블루웨이브’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상원 승리로 수반돼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블루웨이브가 실현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이나 대형 인프라 투자, 의료보험 정책 등이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 매크롬 UBS글로벌자산운용 채권 담당자는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식 시장은 부정적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상원 잡을라...월가 ‘노심초사’

민주당 과반 확보 못하면 경기부양책 동력 약화... 시장 부정적

이처럼 시장에선 대통령이 민주당이, 상원 과반 이상은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 경기부양책 규모가 가장 작아지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원 모두 가져갈 경우에는 이들이 깨내든 정책 공약이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정책 원안 그대로 이행할 힘을 얻게 된다.

에드 캄벨 QMA 펀드매니저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상원을 동반하지 않은 바이든의 승리는 시장에서의 모든 시나리오 중 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캄벨이 언급한 사례는 현재 민주당 하원과 백악

관의 협의하고 있는 1조8000억 달러(약 2044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다. 공화당 상원은 부채 확대에 따른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블루웨이브가 될 경우 증세와 규제 강화로 기업 수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로 부터 차츰 회복 중인 시장이 대대적으로 반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승리를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47석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3석 이상을 늘릴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과반을 넘어 6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관의 협의하고 있는 1조8000억 달러(약 2044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다. 공화당 상원은 부채 확대에 따른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블루웨이브가 될 경우 증세와 규제 강화로 기업 수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로 부터 차츰 회복 중인 시장이 대대적으로 반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승리를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47석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3석 이상을 늘릴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과반을 넘어 6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관의 협의하고 있는 1조8000억 달러(약 2044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다. 공화당 상원은 부채 확대에 따른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블루웨이브가 될 경우 증세와 규제 강화로 기업 수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로 부터 차츰 회복 중인 시장이 대대적으로 반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승리를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47석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3석 이상을 늘릴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과반을 넘어 6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관의 협의하고 있는 1조8000억 달러(약 2044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다. 공화당 상원은 부채 확대에 따른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블루웨이브가 될 경우 증세와 규제 강화로 기업 수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로 부터 차츰 회복 중인 시장이 대대적으로 반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승리를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47석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3석 이상을 늘릴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과반을 넘어 6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이낙연 '대선 승부수'... 약속 깨고 서울·부산시장 공천

민주, 당원 찬성 86%로 당헌 바꿔... "피해 여성에 사과"
후보 전폭 지원 방침... 선거 결과 따라 대선행보 갈릴 듯
김종인 "민주당 정직성 상실"... 정의당 "민주시민 모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정립했던 당헌을 고쳐 보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결정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사실상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이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를 보람 있게 여기도록 하겠다"며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세운 당헌을 고친 것이다.

이 대표는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을 그만둬야 하는 이 대표는 빠르게 후보를 결정하고 전폭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도 야당보다 자신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호·박주민 의원 등이 고려된다.

이낙연 대표는 40%를 웃돌던 대선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이 대표로서는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대선 행보에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 반면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공개 인증했다"며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직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라는 방법으로 공개 버렸다. 무려 87%라니 집단죄면이라도 걸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적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 건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에 대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기대한 많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내년 보궐선거에 자체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적절성 여부를 물었고 당원 21만 804명(26.35%)이 참여해 찬성 86.64%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앙위를 열어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 절차를 본격 착수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양복 주머니에서 발표 자료를 꺼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조세연구 "대기업 영업이익 늘 때 하도급 中소 감소"

"대·中소 간 선순환 고리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계가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투자로 연결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우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월간재정포럼 10월호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 및 재정 정책연구에서 하도급 관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기업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심

층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자료의 한계에 따라 일반적인 분석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하도급을 맺은 기업의 성과 변화와 맺지 않은 유사 기업의 성과 변화를 비교하고 하도급 맺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 총자산 등 양적인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선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에서는 개선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재무성과를 보면 매출과 총자산은 유의한 증가와 연결됐지만,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오히려 하도급 중소기업 영업이익의 유의한 감소로 이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수가 아주 많거나 중소기업의 업력이 낮아 대기업과 거래기간이 짧을수록 완화됐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부정책의 혜택이 원도급 대기업에 빨대 효과를 거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관계만 분석할 경우 하도급의 성과가 낮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중소기업이 하도급 관계에 안주해 독립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특고·프리랜서 월소득 69% 급감

30~40대 타격 집중... "연내 특고 고용보험 입법 총력"

6월 1일~7월 20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고·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0~40대가 70% 이상 소득이 감소해 다른 연령대보다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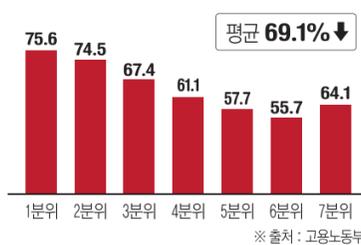
2일 고용노동부는 1차 긴급지원금 신청자(수급자) 수가 175만6000명으로 이 중 특고·프리랜서는 58만7000명(33.4%)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코로나19 이전(작년 월평균 소득·작년 12월~올해 1월 중 특정 월·작년 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택일)과 이후(올해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에 달했다.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약 절반(49.0%)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약 30%로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 모두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대(66.4~68.7%)에 비해 소득 감소가 컸다. 소득분위별(소득 10분위)로는 1분위가 75.6%로 6분위(55.7%)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포인트(P) 높았는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직종은 방문교사

특고·프리랜서 소득수준별 소득 감소율 (단위: %) ※코로나19 위기 이전 대비 3~4월 평균



(66.2%)로 나타났다. 이어 대졸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감소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관련종사원(10만3000명), 서비스관련종사원(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2만4000명), 학습지교사(2만3000명) 등 순이었다.

특고·프리랜서를 포함한 긴급지원금 전체 수급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자의 46.0%가 소득 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 하위 40%에 속했다. 특히 무급휴직자(34.5%)보다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의 소득 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정부, OECD 필요 통계만 인용... 재정건전성 착시"

예결위 "가중평균치 대신 단순평균치 비교해야"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필요한 통계지만 인용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정부부채(D2)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단순평균치, 가중평균치 통계

를 모두 발표하는데 우리 정부는 2015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는 전자를, 2015년 결산부터 지난달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는 후자를 인용한 것이다.

가중평균치는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일본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므로 단순평균치보다 높게 계산된다. 즉, 가중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더 양호하게 보일 수 있다.

이들테면 2013~2018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가중평균치 증가

율은 0.5%포인트로 같은 기간 한국과 같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평균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지는 동안 한국은 뒷걸음질 쳤다는 정반대 해석이 나온다.

예결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경제에 비거축통화국인 한국으로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평균치를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부동산 매매 안정, 전세 불편 기다려 달라"

김상조 靑 정책실장, LH·SH 통한 물량 확대 검토 밝혀

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겪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과거에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준비 중인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실인 아파트



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



대한민국 배터리의 꿈을 꾸다

1982년 SK 배터리 사업 비전 설정
1985년 SK 배터리 등 개발 연구소 업계 최초 설립
국내 최초, 최대의 정유·화학회사로 1962년 설립된 유공은 現 SK이노베이션의 전신임



대한민국 배터리의 꽃을 피우다

2004년 SK 배터리 안전 핵심소재 LiBS(분리막)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상업화 성공. 2005년 본격 생산
2006년 SK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성공
2009년 SK 배터리 글로벌 첫 수주(D사)
2010년 SK 배터리 탑재된 국내 첫 전기차 생산
2011년 SK 배터리 글로벌 슈퍼카 공급 업체 선정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와 함께하다

SK 배터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SK 배터리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미국)
SK 분리막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SK Innovation



대한민국 배터리의 싹을 틔우다

1991년 SK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시작
1992년 SK 대한민국 G7과제 전기차 배터리 개발 주관기관 선정
1993년 SK 배터리 전기차 시험운행 성공
1996년 SK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시작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를 놀라게 하다

NCM622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2)/첫 양산(2014)
NCM811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6)/첫 양산(2018)
NCM9½½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9)/첫 양산(2022예정)
NCM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기술로,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N(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첨단으로 국내외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전후부터 글로벌 수주를 해 오고 있음

세계를 움직이는 K-배터리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전기차 개념도 희미하던 38년 전,
에너지축적배터리시스템은 SK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 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금감원 사전 면담 업체 고작 12곳
온투협회 추진단 1차 검증에도
대주주 표기 오류 등 서류 부실
올해 온투업자 등록 극소수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월	2020년 8월
업체 수	183개	205개	237개	240개	138개
평균 연체율	5.50%	10.90%	11.40%	15.80%	11.80%

자료: 금융감독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인 간 거래(P2P) 업체 중 올해 안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는 업체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P2P 업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위해 12곳의 업체와 사전 면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서류가 부실해 연내에 등록을 완료할 업체는 한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금감원이 12곳의 P2P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P2P 업체들이 정식 등록 전 온투업자 등록에 필수 사항

을 서류에 기재해 당국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이후 P2P 업체는 금감원의 지적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보완해 온투업자 등록을 준비한다.

그간 P2P는 제도권 밖의 금융이었다.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금융'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이 관리하지 못했다. 그 사이 P2P는 240여 개 업체가 난립하며 '떡튀', '돌려막기' 등 수백억 원대의 피해액을 내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투자금 251억 원을 모은 넥스리치펀딩의 대표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576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블루문펀딩의 대표가 잡혀간 게 대표적이다. 당국은 공여지책으로 P2P 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감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지난 8월 온투법이 시행됐다. 온투법으로 P2P는 제도권으로 편입돼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됐고, 허가받은 업자만 영위하는 업이 됐다.

기존 P2P 업자들은 1년의 유예기간으로 내년 8월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수 업체만이 등록 가능하거나 올해를 넘길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면담 피드백이 빠른 업체도 있지만 느린 업체도 있다”며 “몇몇 P2P 업체들의 금융 이해도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실제 한 P2P 업체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 대주주를 기재해야 하는 칸에 최대주주가 아닌 예도 대표 이름을 써 제출했다.

앞서 P2P 업체들의 모임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업체들의 서류를 검사해 12곳만을 금감원 사전 면담으로 넘겼다. 사실상 협회 설립 추진단의 1차 검사를 거친 업체들임에도 잡음이 나오는 셈이다. 240개가 넘는 P2P 업체 수는 많아야 1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등록을 마칠 P2P 업체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업체들이 잘 따라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 당국은 사전 면담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점검 등을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P2P금융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1, 2금융권의 문턱은 못 넘는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P2P 업을 지속하는 업체 규모가 줄기 때문이다.

채일권 글로벌인프라연구소대표운용역은 “P2P가 제도권에서 안 내주던 파이낸싱을 작은 회사들에 내줬다”며 “P2P를 활용해 파이낸싱을 받던 분들이 시장에서 디폴트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정책을 많이 준비했지만 업계와 충분한 사전적인 교감이 부족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

회추위, 단독 후보로 추대



에 선임됐으며 이달 1일로 임기를 마쳤다. 회추위는 정 이사장을 비롯해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 4명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날 투표를 통해 정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 주중 회추위가 정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추대하면 같은 날 15개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회원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개사 이상의 회원사가 참석해 과반(6개사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회장에 선임된다. 객잔산 기자 jinsan@

정지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으로 추대됐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지원 이사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손보협회는 다음 주에 총회를 열어 정 이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 김용덕 회장의 공식 임기는 5일까지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정 이사장은 행정고시 27회로 1986년 당시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거쳐 2014년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7년에 거래소 이사장

신보, 현대차 협력사 220억 규모 보증

전기차 사업 참여 업체 대상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업에 220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혁신금융 추진 정책과 지난 6월 발표된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신보가 협력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개별기업의 과거 매출실적, 재무등급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 프로젝트의 혁신성, 성장성 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비율이 취약한 중·저 신용의 협력기업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차세대 연료전지 사업,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등 미래 혁신적인 프로젝트

이며 보증지원 한도는 프로젝트 당 최대 400억 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협력기업 당 최대 20억 원이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위해 신보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8월 '공동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신보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현대자동차의 E-GMP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의 순수전기차 '아이오닉' 양산에 돌입하는 협력업체 중 11개사가 총 220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 자금은 양산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 원재료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의 매출실적과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취약한 기업이라도 공동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다”며 “향후 자동차 분야 이외에도 조선, 철강 등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객잔산 기자 jinsan@



방문규(오른쪽)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웹캠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국내 본점과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30여 명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취임 1주년' 방문규 수은 행장, 젊은 직원과 '랜선 소통'

비대면 타운홀미팅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방문규 은행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직원들과 비대면 타운홀미팅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직원들과 대면 접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은행 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캠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타운홀미팅에는 국내 본·지점, 해외 법인·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5년차 내외

젊은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두 시간 동안 계속된 이번 미팅에서는 업무계획, 여신 전략, 직제개편, 인사방향성 등 은행 현안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넷플릭스 시리즈, 집에서 시간 보내는 방법, 체력관리 비결 등 방 행장 개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도 쏟아졌다.

인도 뉴델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해외에서 일하다보면 본점 소식이 무척 궁금한데 행장님과 대화를 통해 많이 해소됐다. 가능하면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은 “연말에 직제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있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행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장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방 행장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소통 공간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관심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객잔산 기자 jinsan@

국민은행 리브엠 '금융+통신' 결합 혜택

'더 주는 리브엠 적금'·'더 주는 LTE 요금제' 출시

KB국민은행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해 혜택을 제공하는 '더(The) 주는 리브엠 적금'과 '더(The) 주는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리브엠 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으로 가입 기간은 1년제와 2년제 2종류이다. 신규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원 단위이며,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기본 이율은 1년제 연 0.9%, 2년제 연 1.0%이다. 우대금리는 적금 신규 월 다음 달 말일까지 리브엠에 가입돼 있는 경우

연 0.2%포인트, KB오픈뱅킹에 타 은행 계좌를 등록한 경우 연 0.3%포인트가 적용돼 1년제는 최고 연 1.4%, 2년제는 최고 연 1.5%가 적용된다.

LTE 요금제의 기본 요금은 월 1만 원, 월 1만5000원, 월 2만8500원 3종류로 구성돼 있다.

리브엠 적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달까지 LTE 요금제를 개통한 고객이 적금 만기까지 요금제를 유지하면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이



만나 새로운 혜택을 드리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 하는대로 돈보이는 금융생활

쉽고 편리한 금융생활 돈보기, 우리WON뱅킹



WON하는대로
우리WON뱅킹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8.12 준법감시인-1840 심의필(유효기간 : 2021.08.31)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잡아라” 삼성, 5나노 AP 현지 론칭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1080’ 12일 첫선
비보 X60 스마트폰 선포제
“내년 5나노 칩 공급 본격화”

삼성전자의 첫 5나노(n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1080’의 출시행사가 이달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삼성전자가 AP 출시에 따른 별도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엑시노스 시리즈 성공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중국 법인 연구조직(R&D) 공식 웨이보는 전일 오후 “12일 상하이에서 삼성 엑시노스의 첫 국내 오프라인 발표회가 개최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엑시노스 1080은 엑시노스 980의 후속 제품으로, 5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전자의 첫 번째 AP다. 중앙처리장치(CPU)는 영국 ARM의 ‘코어텍스 A78’, 그래픽처리장치(GPU)도 ARM의 ‘말리 G78’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전자과 비교해 전력 효율과 성능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다. 출시 행사가 중국에서 열리는 건 현지



삼성전자 5나노 모바일 AP ‘엑시노스 1080’ 중국 출시 행사 포스터.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AP 시장에서 점유율 3위에서 5위로 밀려나며 외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는 일종의 기회다. 점유율을 뺏기 위해 오포·비보·샤오미 등 중국 경쟁사들이 제조 물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화웨이는 자회사 하이실리콘 AP를 사용했지만, 중화권 경쟁사는 자사 제품에 퀄컴과 미디어텍을 비롯한 외부 칩

트를 탑재해왔다. 대량 외부칩세트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특히 최근 비보 등을 중심으로 원가 경쟁력을 위해 엑시노스를 선택하는 제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초 판수에바오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연구소 상무는 비보 주최 행사에 참석해 신제품인 비보 X60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1080이 선포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5나노 공정 엑시노스 시리즈 입지 높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엑시노스 1080 외에도 내년 상반기 출시될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에 들어갈 고급형 AP인 엑시노스 2100도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신동호 전무는 3분기 콘퍼런스 콜에서 “최첨단 5나노 공정을 적용한 5G 칩세트 공급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5G 통신 모듈’과 고성능 ‘모바일 AP’를 하나로 통합한 5G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Exynos) 980’을 공개한 바 있어 1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인 것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창립 5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타계 모두에게 큰 슬픔 도전과 혁신 DNA 계승·발전시키자”

삼성전자 창립 51주년
JY 대신 김기남 부회장 기념사

모두에게 또 하나의 큰 충격과 슬픔이었다”며 “회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이견희 회장 별세 이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았다. 조촐하게 치러진 기념식에선 이 회장의 도전·혁신 정신을 계승해 100년 기업 기반을 구축하자는 다짐이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김기남 DS 부문 부회장, 김현석 CE 부문 사장, 고동진 IM 부문 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념식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행사 역시 엄숙하고 조촐하게 진행됐다.

김기남 부회장은 창립기념사 시작에 앞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견희 회장을 추모했다. 김 부회장은 “이견희 회장의 타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한 경영 환경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임직원

이어 임직원들에게 “우리에게 내재한 ‘도전과 혁신의 DNA’를 계승·발전시키고,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업계의 판도를 바꿔 나가는 창조적인 기업으로 진화하고, 임직원 간 서로 배려하고 상호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 기반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기념식에서 창립 기념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성과를 되돌아봤다.

사내 곳곳에서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을 비롯, 마스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영덕연수원을 제공한 활동 등이 주 내용이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브랜드가치 글로벌 5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돌아봤다. 노우리 기자 we1228@

현대차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1호에 동커볼케 부사장

제네시스·친환경차 등 ‘대외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총괄

현대자동차그룹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CCO(Chief Creative Officer)를 신설하고, 담당 임원에 루크 동커볼케(사진) 부사장을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신설된 CCO는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업무를 수행한다. 유럽 등지로 시장 확대를 앞둔 ‘제네시스’ 브랜드와 현대차의 첫 전기차 전용 ‘아이오닉’ 브랜드, 수소전기 트럭과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디



인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의 디자인에 관한 선행 연구, 유명 디자이너와 관련 분야 석학과의 교류도 모색하는 등

디자인을 화두로 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역시 시도할 방침이다. 신임 CCO를 맡은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은 2016년 1월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 줄곧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고, 올해 3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할 때까지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디자인 담당을 맡은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이 디자인의 방향성 정립과 전략 수립에 직접 이바지한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디자인 기반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CCO 역할의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영입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CCO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주력하고, 브랜드별 디자인 개발은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현대디자인담당 이상엽 전무가 △기아차는 기아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 전무가 현행대로 전담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기업 PR)

금호석화, 리더십·외국어 상시 교육...글로벌 인재 육성

직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도전 정신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유화학 전문그룹으로 성장한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왔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에 투자하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2011년부터 상시 학습 온라인 플랫폼인 링크 아카데미(Wink-A)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링크 아카데미에서 매년 초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연간 64시간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 과정은 리더십, 직무, 어학, 자격증, 전화 외국어, 인문학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매년 초에는 회사 게시판에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독서감상문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직원들의 지식수준과 인문 소양 향상을 도모하기 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직무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의 국가공인 자격증·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응시료, 학원비, 도서 및 부대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공인 자격증으로는 AICPA(미국공인회계사), FRM(재무리스크관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CPIM(생산재고관리사), PMP(프로젝트관리전문가) 등이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인재가 바르게 성장하며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사내 그룹웨어를 활용해 업무 중 소통해줄 수 있는 임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분기마다 그룹웨어에 업로드되는 매거진에는 ‘두유노’ 연재물을 기획해 사내 다양한 팀의 업무 성격과 팀원들의 관심사, 생각 등을 공유하고 있다. 전사적 ‘칭찬 릴레이’도 2012년부터 그룹웨어 상에서 진행하고 있다. 매일 임직원 3명이 업무와 회사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직원을 릴레이 형식으로 한 명씩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회사의 노력은 노사 상생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임금협상을 마치고 33년 노사 무분규 협약을 이어나갔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3개 노동조합이 임금 조정 권한을 사측에 위임하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노사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로봇이 만드는 커피맛은?

LG전자가 최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로봇솔루션을 선보이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LG 클로이 바리스타봇(LG CLOi BaristaBot)’이 직접 핸드드립 방식으로 만든 커피를 경험했다. LG전자는 임직원에게 클로이 바리스타봇을 소개하는 동시에 바리스타봇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가 최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로봇솔루션을 선보이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LG 클로이 바리스타봇(LG CLOi BaristaBot)’이 직접 핸드드립 방식으로 만든 커피를 경험했다. LG전자는 임직원에게 클로이 바리스타봇을 소개하는 동시에 바리스타봇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LG전자

(주)한화 ‘비인도적’ 분산탄 사업 지분 전량 처분

(주)한화는 2일 분산탄 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지분 40만 주 중 31만2000주를 디펜스케이에 78억 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디펜스케이에 KDI로 옮기는 직원 일부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KDI 대표로 임명된 정정모 대표가 이 법인의 대표를 맡는다.

(주)한화는 KDI 지분 매각을 위해 지명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준에 따라 디펜스케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매각 후 잔여지분은 모두 KDI로 옮긴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등 형태로 지급한다. KDI 분사 소재지는 세종시이며 직원 220여 명 규모다.

유럽에서는 분산탄을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한다. (주)한화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 분할의 이유로 “분산탄 이슈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제로페이 1년 새 결제액 20배 '쑥'... 수수료 73억 절감

지난달 말 기준 9400억 결제... 가맹점 65만 개로 늘어
지자체 상품권 사용 통한 '모바일 상품권' 결제도 증가
온라인 직불서비스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결제금액은 20배, 가맹점은 두 배 늘어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품권 사용을 통한 모바일상품권 결제도 증가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은 2일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결원은 2019년 11월 출범해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새로운 핀테크 인프라를 표방하는 제로페이의 가맹점 모집과 관리뿐만 아니라 기능·서비스도 확충하고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달 말 기준 65만 개다. 1년 전(30만 개)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도 서울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다양하다. 같은 기간 결제 금액은 9400억 원으로 전년 470억 원 대

비 20배 증가했다. 특히 결제금액의 70.32%(6610억 원)가 소상공인가맹점에서 결제되면서 카드 대비 수수료 절감 금액이 73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11월 중순쯤 결제금액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상품권은 전 구간에서 수수료가 없어 실제 수수료 절감 효과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올해 본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법인제로페이 등 결제 서비스와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복지 및 소비쿠폰 등 캠페인 영역으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제로페이를 인프라로 활용해 부가까지 사업까지 진행하게 된 셈이다.

특히 제로페이 연계 상품권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 온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한 고객이 제로페이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까지 늘어나면서 제로페이 누적 결제금액도 7430억 원으로 급증했다. 윤 이사장은 "내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복지를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제로페이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현금성 경비지출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법인제로페이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도입 직후 9000만 원에 불과했던 이용금액은 올 10월 말 40억 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소기업부(시범운영)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20개 지자체가 이용 중인 가운데, 한결원은 내년 이를 모든 중앙부처로 확산키로 했다.

한결원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상생결제 인프라'로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을 2023년까지 200만 개로 늘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직불 서비스도 추진한다. 제로페이 빅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제로페이 가맹점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챗페이 서비스도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페이를 통한 QR 결제가 가능해진다. 한결원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제로페이는 어디까지나 인프라 사업인 만큼 가맹점에 집중하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이익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단 원칙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소상공인 업장에 제로페이 QR코드를 깔고 전국 어디서나, 나아가 세계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지스타 역사가 곧 넥슨 역사”

첫 행사부터 14년 연속 참가
2010년 게임대상 6관왕 영예
2016년 '역대 최다' 400부스
PC·모바일 플랫폼 모두 석권



2018년 지스타 넥슨 부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는 국내외의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을 공개하거나 체험 부스를 여는 '축제의 장'이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10대부터 50대까지 게임 마니아라면 누구나 어우러지는 행사이기도 하다.

지스타에서 넥슨은 2005년 첫 개최 때부터 2018년까지 14년 연속 행사에 참가하며 게임업계 '큰 형님' 역할을 해냈다. 업계에서는 넥슨과 지스타를 합쳐 '넥스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불참을 선언하긴 했지만 올해는 게임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스타 2020'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행을 결정했다.

넥슨은 매년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전시 방식을 도입하고 캐주얼, 스포츠, MMORPG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대거 공개하며 지스타를 이끌었다. 2005년에는 총 40미터에 달하는 원형 스크린과 5.1채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동영상을 위한 독립 건축물을 만들어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넥슨은 카트라이더 등 캐주얼 게임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특유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살려 전시 부스를 꾸몄다.

지스타 기간에 맞춰 기존 라이브 게임의 신규 캐릭터를 출시하기도 했다. 마비노기 영웅전은 '지스타 2010'에서 이종 격투기 선수로 유명한 밥 셉을 모델로 한 캐릭터 '카록'을 공개했다. 마비노기 영웅전은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0'에서 대상을 포함해 인기게임상, 기술·창작상 4개 부문 등 6관왕을 차지하며 지스타의 주인공으로 기록된 해였다.

게임 시연대를 없앤 미디어아트 중심의

파격적인 부스 디자인은 '지스타 2014'의 중심이었다. 360도 영상관을 구현한 미디어 갤러리를 비롯해 개발자 발표와 관람객 이벤트 중심의 오픈형 무대 슈퍼스테이지, 모바일 게임 시연이 가능한 모바일스팟 등 3개의 독립된 공간에는 나흘간 수십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스타 2016'에는 게임사 본질로 돌아가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게임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뜻을 담은 '라이프 비온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역대 최다 부스인 400부스를 마련했다. '지스타 2018'은 자체 e스포츠대회와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스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 게임 시상식인 '대한민국 게임대상'이다. 넥슨은 2010년 '마비노기 영웅전'과 2016년에 모바일 게임 'HIT(히트)'로 두 플랫폼에서 모두 대상을 받은 유일한 게임사다. 게임뿐 아니라 자율규제 이행 우수기업상, 사회공헌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기업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IT(히트)를 개발한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는 올해 V4로 또 다시 분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월 출시 후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2위에 오르며 일대 파란을 일으킨 '바람의나라: 연'도 분상 후보에 진출했다. 실제 축구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묘미를 모바일로 옮긴 FIFA 모바일은 인기게임상 후보에 선정됐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이통 3사, 3분기 '호실적' 기대감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연내 10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동통신 3사의 올해 남은 실적에 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924만8865명으로 전월 대비 59만643명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865만8222명으로 800만 명을 돌파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박정원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연말까지 5G 가입자가 110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급률로 따지면 22.1%다. 9월 5G 가입자 순증은 59.1만으로 순증 점유율은 SKT 47.8%, KT 30.5%, LG유플러스 21.6%를 기록했다. 전체 5G 누적 가입자 점유율은 SKT 46%, KT 30.4%, LG유플러스, 23.5%로 전체 핸드셋 점유율과 같은 45:30:25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업계는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늘고, 마케팅비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3,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12가 흥행할 것으로 전망돼 남은 분기 호실적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사전예약 한 아이폰12는 사전예약 기간에만 판매량이 50만 대에 달

아이폰12 흥행에 5G가입 더 늘듯
3사 예상 영업익 9050억...16%↑

SKT, 매출 4조6928억 '최대 실적'
KT, 클라우드 IDC사업 수혜 확대
LGU+, 영업익 47% 증가한 2286억

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아이폰 판매량이 166만 대였음을 고려하면 월평균 60만 명 이상의 순증은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이달 5일에는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 6일에는 KT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905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SKT는 3분기 매출액 4조6928억 원, 영업이익 3616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영업이익은 19.7% 증가한 규모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을 올해 SKT의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4.2%, 17% 늘어난 18조5000억 원, 1조300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5G 가입자 확대도 본업인

MNO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1%, 5.5% 늘 것으로 전망했고 ADT캡스와 SK인포섹 등 외형 기준 올해 최대 실적을 예견했다.

KT의 3분기 매출액은 6조819억 원, 영업이익은 3073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액은 2.1% 줄고, 영업이익은 1.6% 줄어든 규모다.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3분기에 반영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의 5G 가입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반기 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국내 IDC 1위 사업자로서의 수혜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매출액은 3조3735억 원, 영업이익은 2286억 원으로 추정된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 46.6% 늘어난 규모다. 자회사 LG헬로비전으로부터 신규 알뜰폰(MVNO) 가입자 유입,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 등이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IPTV 요금제인 '프리미엄 내맘대로', 'U+5G 넷플릭스 팩' 등 신규 요금제 출시 효과가 4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ARPU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삼광 3사 합병... 친환경 에너지기업 'SGC' 출범

안찬규 대표 "신재생에너지 기반 글로벌 에너지기업 발돋움"

SGC에너지가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투자사업 부문 합병 및 분할합병 완료로 공식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SGC에너지는 CI 선포식 행사를 갖고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기업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일원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안찬규 대표는 "SGC는 에너지, 건설, 유리, 자원 사업을 등을 영위하고 있어 고객

들의 일성과 함께 해 왔다"면서 "그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GC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린뉴딜'에 앞장서는 대표 주자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수소연료전지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SGC는 사업지주사인 SGC에너지(구, 군장에너지)가 주축이 되어 SGC이테크

건설(구, 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 SGC그린파워(구, SMG에너지), SGC디벨롭먼트(구, SG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로그타입은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3개 회사가 체인처럼 연결된 완전한 하나'를 형성한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의 의미를 담았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롯데리아’도 희망휴직 받는다

적자전환 롯데GRS 접수 시작
‘애슬리’ 이랜드이츠도 무급휴가
코로나 직격탄에 외식업계 위기

롯데그룹 외식 계열사 롯데GRS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희망휴직을 접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 1위 브랜드인 ‘롯데리아’와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외식 업체다.

최근 CJ푸드빌이 주력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매각을 추진하고 희망퇴직을 접수받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 이어 롯데GRS까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연말을 앞두고 외식업계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GRS의 희망휴직은 재직 중인 정규직 전 직원이 대상자이며 지난달 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원하는 만큼 무급휴직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 직원 수는 1952명이다.

롯데GRS는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생활 지원금(△3개월 이하 미지급 △4개월 이상 월 20만 원 △10개월 이상 월 3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희망자에 따라 개인이 (휴직) 신청하는 것”이라며 “휴직 규모나 계획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롯데GRS의 무급휴직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어드는 대신 내식 문화가 확산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비용 절감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지주의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GRS는 전년(4210억 원)보다 18.7% 감소한 342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73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외식 이용자가 줄어드는 와중에 햄버거 업계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는 점도 롯데GRS의 입황 전망을 어렵게 한다.

올해 초 ‘베스트 버거’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매출을 늘린 맥도날드가 여전히 견재한다.

여기에도 국내 브랜드 ‘맘스터치’는 매장 수 기준으로 롯데리아와의 격차를 줄이

고 있고, 뉴페이스인 신세계푸드가 가성비 버거로 마케팅하고 있는 ‘노브랜드 버거’도 신규 출점을 통해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 소식이 잇따르면서 외식 업계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CJ그룹 외식 계열사 CJ푸드빌은 베이커리 업계 2위 브랜드인 ‘뚜레쥬르’ 매각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달까지 본사 지원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CJ푸드빌은 앞서 충북 진천공장을 CJ제일제당에 207억 원에 넘기는 등 자구책 마련에 집중했으나, 올해 빚스와 계절밥상 등 핵심 사업 매출이 급감하며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다.

‘애슬리’와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외식업체 이랜드이츠도 무급휴가를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본부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 무급휴가를 실시한 이랜드이츠는 당초 7월 비상경영 선언 당시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던 무급휴가를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캐나다 명품 패딩 ‘카눅’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현대백화점은 19일까지 압구정 본점 지하 2층 행사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캐나다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카눅(KANUK)’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카눅’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다양한 컬러를 선보이며, 신다운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 여성용 패딩(CAMDEN)이 178만 원, 남성용 패딩(JONAS)이 186만9000원에 선보인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매장수에서 유튜브·TV·인스타까지...

GS25-CU ‘편의점 온라인 혈투’

유튜브 ‘실버버튼’ 경쟁 이어
CU ‘맛남의광장’ ‘편스토랑’
GS25 ‘네고왕’ 등 PPL 잇따라

편의점 업체들이 오프라인 점포 수 경쟁에 이어 온라인 혈투가 한창이다. GS25와 CU(씨유)가 오프라인 점포수 경쟁에 이어 유튜브와 TV,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으로 옮겨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최근 인스타그램 팔로워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기준 구독자 수는 30만5000명으로 라이벌 CU의 28만6000명보다 많다. 다만 편의점 업계 인스타그램 팔로워 1위 업체는 세븐일레븐(30만9000명)이다.

편의점 업계의 온라인 마케팅 경쟁은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다. 유튜브 채널 첫 구독자 10만 명 기록도 양사 간 선전 논란이 있었다. 지난 4월 CU가 2월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며 편의점 업계 최초로 ‘실버버튼’(유튜브가 구독자 10만명 돌파 채널에 주는 기념증서)을 받았다고 홍보하자 GS25는 곧바로 CU보다 일찍 10만 명을 넘기고 실버버튼을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구독자가 비슷한 수준인 것과 달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콘텐츠를 소비했느냐를 따지는 누적 조회수로는 GS25가 경쟁사를 압도한다. GS25의 지난달 27일 기준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는 3634만회로 CU(1157만회)와 세븐일레븐(1544만회)의 2배가 넘는다.

이는 GS25가 SNS를 활용해 고객 확보에 나서면서 ‘양’보다 ‘질’ 추구로 전략을 가다듬은 결과이기도 하다. 경

쟁사처럼 프로모션을 통해 팔로워나 구독자수를 확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콘텐츠로 승부한 점이 주효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콘텐츠와 상품이 결합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진다”면서 “퀄리티 높은 콘텐츠로 승부해야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많아져 중도 이탈이 낮고, 매출로도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9일 유튜브 콘텐츠 황금회의 ‘네고왕’에 GS25가 노출되면서 이 회사의 모바일앱인 더팝 일일 접속자 수는 184만 명, 신규 가입자는 12만 명을 기록하면서 모바일 앱 론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상품 판매도 방영 전주 대비 55% 이상 신장했다.

편의점들의 라이벌 구도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진다. 최근 CU는 SBS 인기 예능 ‘맛남의 광장’에서 선보인 백종원표 사과파이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에서 이준준 BGF리테일 대표에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충남 예산 사과로 애플파이의 상품화를 제안했다는 스토리도 입혔다.

아울러 CU는 지난해부터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제작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경규의 마장면’과 ‘미트파이’, ‘앵그리 풀면’, ‘수란덮밥’ 등 협업 상품들을 내놨다.

GS25도 지창욱, 김유정 주연의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제작 지원을 받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 드라마는 ‘편스토랑’과 같은 시간대에 방영돼 맞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돌체라떼·민초라떼도 집에서

맥심 카누 신제품 2종 출시

커피전문점의 메뉴가 홈카페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아메리카노, 라떼는 물론 복잡한 레시피의 메뉴까지 믹스 한 봉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서식품은 따뜻한 커피가 어울리는 계절인 겨울을 맞아 인스턴트 원두커피 ‘맥심 카누’의 신제품 라떼 2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맥심 카누 돌체라떼’, ‘맥심 카누 민초코라떼(사진)’ 2종으로, 8개입·24개입 두 가지 규격으로 출시된다.



카누 돌체라떼는 연유 특유의 부드러운 달콤함을 강조한 제품이다. 카누 민초코라떼는 기존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에 없던 새로운 맛으로 달콤한 초콜릿과 청량하고 상쾌한 민트향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미가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맥심 카누는 스카누라떼 스카누 더블샷 라떼 등을 포함해 총 8종으로 라떼 라인업을 확대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신세계아울렛 “피크닉 매트백 드려요”

‘로우로우’ 협업 굿즈 마케팅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이 굿즈 마케팅에 나섰다.

신세계사이먼은 6일부터 트립웨어(Trip Wear) 전문 브랜드 ‘로우로우’(RAWROW)와 협업한 ‘피크닉 매트백’ 2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피크닉 매트백’은 일상에서는 시티라이프 감성의 솔더백으로, 펼쳤을 때는 캠핑, 피크닉, 차박 등에 필요한 ‘피트닉 매트’로 활용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굿즈이다. 머스터드 가방과 민트그레이 매트 색상, 네이비 가방과 머스터드 매트 색상 2종으로 준비했다. 고밀도 워터 프루프 원단을 사용해 야외활동시 방수 기능은 물론 쉽게 오염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신세계사이먼은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피크닉 매트백’ 증정 프로모션을 1차와 2차로 분산한다. 1차 증정 기간은 6-8일, 2차 증정 기간은 13일부터 15일까지다. 당일 삼성카드 4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 증정하며, 점별로 한정수량 준비됐다.

남주현 기자 jooh@

‘쓱데이’ 매출 6400억... 소비자 지갑 열었다

이마트 ‘레드 킹크랩’ 15톤 완판
반값 한우도 평소 6배 이상 팔려
신세계 “매출 작년보다 36%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올해 두번째로 선보인 대한민국 쇼핑축제 ‘쓱데이’가 총 매출 6000억 원을 넘겼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쓱데이 전체 매출이 지난해 첫 쓱데이 대비 36% 늘어난 6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유통사에 환희를 그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쓱데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더욱 확대해 진행한 결과 SSG닷컴,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 굿닷컴, 신세계TV쇼핑의 온라인 매출이 평균 43% 신장하는 등 온라인 채널을 앞세운 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고객 안전을 위해 행사 기간을 이틀로 분산해 진행한 이마트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2배 가량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먼저 이마트가 10월 31일 단 하루 40% 저렴하게 선보인 레드 킹크랩은 준비한 물량 15톤을 하루만에 모두 판매했다. 15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4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

이밖에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한우는 평소 대비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초특가로 준비한 과일, 제지 등도 완판됐다. 기저귀, 세제 등 생활용품과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도 파격적인 혜택에 평소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

SSG닷컴이 스타벅스와 협업해 준비한 ‘스타벅스 알비백’은 준비한 물량의 90% 이상이 소진됐고, 특히 ‘그린사이렌’ 모델은 행사 시작 이틀만에 전량 조기 품절됐다. 매일 9시부터 선착순 10만 명에게 배포한 1만원 할인쿠폰 ‘줍줍쿠폰’도 행사 첫날 2시간 안에 마감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한정시간 특가로 판매한 애플 에어팟, 스타벅스 컬러체인징 콜드컵 등은 오픈 1분도 안돼 완판됐다.

SSG닷컴이 처음으로 선보인 라이브커머스 ‘SSG.LIVE’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가 출연해 1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했고, 신세계인테리어는 자주, 톱보이 등 22개 브랜드의 네이비 라이브방송 판매를 진행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추가적인 매출과 브랜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신세계면세점에서는 해외 현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파워 셀러 대전’에 무려 66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타필드에서는 1억원이 넘는 이동형 별장이 판매되기도 했다. 캠핑카도 13대나 판매했으며 자동차 매장에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세계인테리어는 자체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가 올해 10월 역대 최고 월 매출을 달성했고, 패션·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2300만 원 상당의 미술품과 고가의 프리미엄 음향기기도 판매되는 등 럭셔리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두번째로 선보인 쓱데이가 고객들이 열광하는 대표 쇼핑 축제로 자리잡은 만큼,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혜택과 상품을 준비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쓱데이는 지난해 대비 매출 36% 증가를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쓱데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축제로 자리잡은 만큼, 내년에도 고객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열광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삼성그룹株 춤추는데... 6만 원 못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후 4.65% 폭 기관, 한 달간 5272억 팔아치워 삼성생명·삼성물산우B 등 강세 4Q 실적 우려·美 대선 등 변수 증권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목표가 7만~8만 원 '매수 의견'



기량 줄어드는 수준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배당정책 이슈, 보험업법 처리, 코로나 상황, 미국 대선 등이 세간의 관심을 삼키는 변수도 주가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는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목표주가도 7만~8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8만6000원으로 가장 높고, 유안타증권(8만5000원), 대신증권(8만원)이 뒤를 이었다. 현재 업계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메모리 수급의 개선 가능성은 매우 크고, 내년 초 특별 주주환원 및 장기적인 배당 확대 가능성도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 투자가 증가할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내년에도 있을 고객들의 주문 증가 및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해 4분기 실적의 둔화는 내년 실적 개선을 앞두고 삼성전자 주식이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삼성전자가 최근 '대한민국 대장주' 다운 면모를 잃어버렸다. 지난달 21일 장 중 6만1500원까지 치솟던 주가는 11월 첫 거래일인 2일 5만7400원까지 주저앉았다. 10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에 -1.37%가 빠졌다. 그 배경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후 기대했던 배당 등 주주친화 정책이 미지근한데 원인이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인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들이 팔자에 나선 점도 부담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은 지난 10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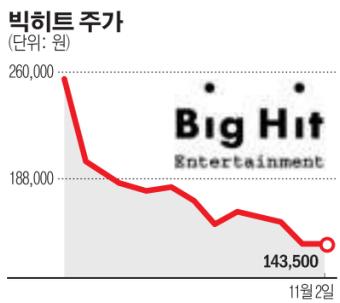
후 5272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전문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부수가 주가 방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자동차 전장(전자 장비),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를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낙점한 만큼 '포스트 반도체' 발굴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주력 사업 '조격차'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별세한 후 주가가 4.6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은 7.69%, 삼성생명이 1.42% 올랐고 배당기대감이 높아진 삼성물산우B는 21.45%, 신라호텔우는 25.15%가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내림세는 의외다. 10월 중순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주가는 6만원대를 넘나들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국 퀄컴의 중저가 스마트폰용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 생산 계약에 이어 1조원대 규모의 5세대(5G) 스마트폰 AP칩을 수주한 덕분이다. AP칩은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핵심 부품이

다. 여기에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삼성전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감도 컸다. 잇따른 대형 수주 등 훈풍은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을 자극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3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66조 9600억 원)과 2년 만에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12조 3500억 원)을 썼다. 문제는 4분기다. 실제로 애플에 이어 1조원대 규모의 5세대(5G) 스마트폰 AP칩을 수주한 덕분이다. AP칩은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핵심 부품이

'추풍낙엽' 빅히트에 체면 구긴 증권사

기관 매도세에 주가 연일 하락 14만3500원...공모가에 근접 의무보유확약 물량 대거 해제 증권사 목표주가 잇따라 낮춰



증권사들이 대어로 꼽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체면을 구겼다. 최근 주식 시장에 변수가 많지만, 소속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 외에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사 목표주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애널리스트 분석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증권사도 무책임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는 전 거래일보다 1.06% 오른 14만3500원에 마감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16만~38만원)보다 한참 낮다.

지난달 58조원을 끌어모으며 공모주 '대박'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연일 계속된 기관투자자의 매도세에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상장 직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기관의 순매도액은 약 930억 원에 달한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주요 주주들의 매물도 있다. 3일 5대 주주인 웰빙링크(중국 벤처캐피탈 레전드캐피탈)는 상환전환우선주 177만7568주를 보통주를 전환하고, 절반인 88만8784주를 현금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은 내년 4월 14일까지 자발적인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했다. 이날 14일엔 총 의무보유확약 물량의 30.88%에 해당하는 132만2416주가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 상장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만 봐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5일 코스피 테부 당일 빅히트는 8조7000억원의 끌

어모으며 32위(우선주 제외)에 이름을 올렸지만 2일 50위(4조8569억원)로 추락했다. 상장 보름 만에 4조원에 가까운 시총이 증발한 셈이다. 증권사들의 평가에 거품이 끼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증권사들의 평가는 공정성이나 시장의 제대로 된 평가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장밋빛 기대에 기초한 거품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자의적"이라며 "시장의 연구기관이 뒤편 증권사가 뒤편 자본시장의 기관이 시장의 바로미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를 낮추는 사례가 나왔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빅히트 목표주가를 기존 26만4000원에서 23만3000원으로 약 12% 하향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익에 대한 시장 의구심은 적지만 수급으로 인한 주가 급락이 투입 악화로 이어졌다"며 "현재 수급 상황에서 지지점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대주주 '칼바람'에 부동산 '신바람'?

대주주 요건 3억으로 낮아지면 과세주식 42兆 달해 연말 증시자금 대거 이탈,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에 몰렸던 부동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당장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4월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낮아지면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규모는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자금이 분류되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1200조 원을 돌파했다. 원계열·평잔 기준 전월대비 19조4000억 원 증가한 1213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장의 기 싸움이 벌어지면서 갈 곳 잃은 여윌 돈이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역대급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지만, 일부 신축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한 데다 수조 원대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 관측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한 증권사 PB는 "주식 투자의 큰 매력은 양도세 비과세인데 이번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해 내년 큰손의 보유 물량이 줄 수 있다"며 "초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에 목돈을 묻어두는 개인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3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투자처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시장에서의 양도세보다는 부동산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는 기존 3억 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 원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년 유예를 고수하고 있다.

재산세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완화대상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제시하지만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만큼 표심에 영향을 주는 재산세 완화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분위기다.

NH투자증권, 인공지능 기반 '자산배분 서비스' 출시

경제지표 데이터 실시간 분석... 3개월 무료 체험 제공

NH투자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서비스인 'NH로보 EMP 자산배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가입 후 3개월간의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NH로보 EMP 자산배분'은 실시간 인공지능 기반의 실물/심리 지표를 자동 수집하고, 시장을 분석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유효한 주식/채권/대체투자(AI) 자산군의 비중을 먼저 배분한다.

이후 모멘텀 스코어 모델을 활용해 국내 거래소 상장 ETF 중 자산군별 최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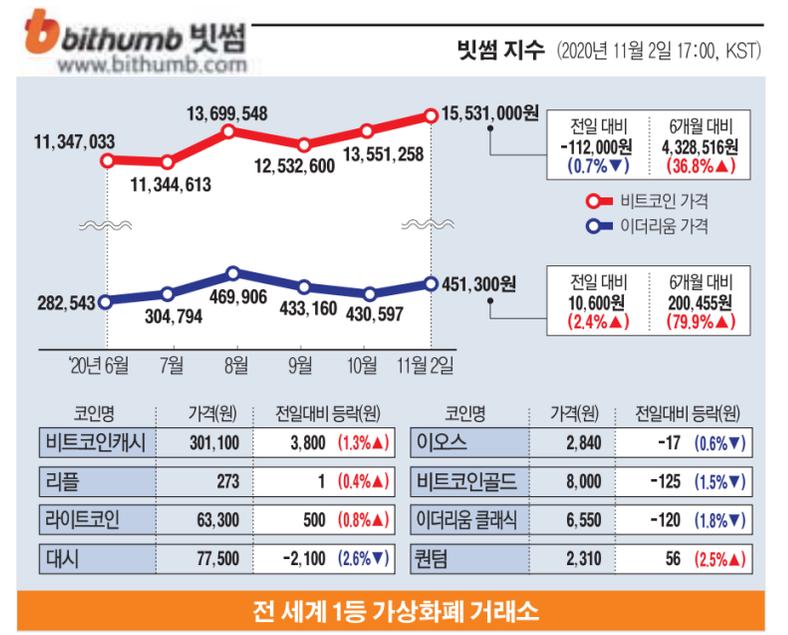
ETF를 선정하여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춘 모델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또 매월 리밸런싱을 통한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가 제공된다.

'NH로보 EMP 자산배분'은 NH투자증권의 QV 및 나무(NAMU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마켓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소액 투자도 가능하게끔 최소 가입금액은 10만 원부터이며 적립식 가입도 가능하다.

무료 체험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자문 보수 없이 이용 가능하고, 이후 연 0.5%의 자문보수가 부과된다. ETF 매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주문 전용화면에서 주문 시, 우대수수료(매매일 기준 2020년 12월 31



까지 0.0006923%, 이후 0.0043319%)가 적용된다. 이수환 NH투자증권 Digital솔루션부장은 "NH로보 EMP 자산배분은 당사에 수년간 축적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NH투자증권의 대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분석 결과를 통해 투자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가격 뛰고 매물 품귀 '최악의 전세대란'...정부는 '노답'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3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000만 원 가까이 뛰었다.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평균 7500만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이렇듯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땅한 전세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도 등 정책 변화가 없으면 내후년까지 전세대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10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지난 8월 5억1011만 원보다 5.2% (2666만 원) 올랐다. 지난달 전셋값은 2018년 10월 4억6160만 원과 비교하면 16.3%(7517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과 강북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구별 m²당 전셋값을 전용면적 86.8m²형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금천구가 3개월 동안 11%(3640만 원)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동구 10.9% (6031만 원)와 은평구 10.3%(3832만 원), 강동구 10.2%(4996만 원)로 10% 넘게 올랐다.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이 오른 영향으로 아파트 중위 전셋값(전셋집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집의 가격)도 경종 뛰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가격은 5억804만 원으로 전달(4억6833만 원)보다 4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3개월새 2666만원 ↑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5억 돌파
정부, 카드 없는데 '대책 내놓겠다' 말만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해결책 될 수 없어

최근 3개월간 서울 전셋값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7월 말 시행한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영향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실종' 현상이 확산됐다. 전세 공급이 줄자 전세 물건 품귀로 전셋값이 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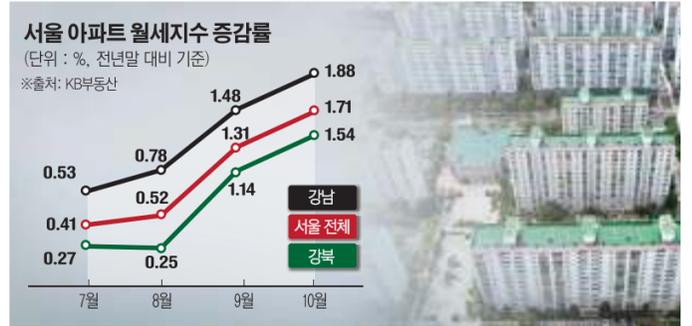
전세 실종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 1233건으로 3개월 전 3만 7174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 전달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지난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서울 주택시장이 사상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원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이나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장기 공급 계획으로 당장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역시 전세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1인당 월세 세액공제 평균 금액은 30만 원 정도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인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월세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년 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전셋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며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반전세·월세로 수요 몰려 월셋값도 가파른 상승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월세가격도 뒤따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 품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격은 지난달 0.40% 상승했다. 강북권이 0.40% 강북권이 0.39% 각각 올랐다. 서울 아파트 월셋값은 9월 0.78% 급등한 바 있다. 강북이 0.88% 강남

거래됐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저금리 기조에서 집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보다 월세를 더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집주인 요구대로 계약이 이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중부세) 등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계약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2.5%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10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6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셋값 지난달 0.4% 상승
보증금·월세 올리는 '이면계약' 성행
"세입자에 중부세 등 전가 피해 급증"

이 0.69% 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월세지수 증감률(지난해 말 대비)은 8월 0.52%에서 9월 1.31%로 치솟았다. 강북은 0.25%에서 1.14%, 강남은 0.78%에서 1.48%로 뛰었다. 10월 월세지수 증감률은 1.71%로 한층 더 올라갔다. 강남은 1.88%, 강북은 1.54%를 기록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셋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m²형은 최근 보증금 6억 20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거래됐다. 9월 같은 면적의 전세 거래가(보증금 6억 원, 월세 60만 원)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뛰었다.

인근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59.88m²형은 지난달 초 보증금 5억 원, 월세 63만 원에서 최근 보증금 6억 원, 월세 88만 원으로 오른 가격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A단지 세입자는 "최근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는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나중에 쓰기 위해 보증금은 5%만 올리고, 새로 추가하는 월세는 집주인이 원하는 선에 맞춰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층 대비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심각한 전세난에 맞물려 월세 역시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상 집주인의 요구에 따른 이면계약 등 세입자의 부담은 실제 표면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진단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집이 한 채인데 수요자가 10명이면 집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내년 매맷값 내리고 전세 오른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은 고강도 규제 여파로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

김성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건설연에서 예상한 올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4.4%)보다도 웃돈다. 내년엔 전세난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들었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물건은 귀해지고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청약에 필요한 해당 지역

건설연, 전국 전셋값 5% 상승 전망
규제여파 매수세 약화...매매가 0.5% ↓

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전세 수요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 김 연구위원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 매맷값은 전국적으로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非) 수도권(-0.3%)보다 수도권(-0.7%)에서 하락 폭이 더 컸다.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내놓은 규제책으로 주택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일제히 인상되는 만큼 주택 처분 압력이 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소량 매물의 강세가 특히 부각될

주택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전기 말 대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매	전국	1.1	-0.4	4	-0.5
	수도권	3.3	0.5	5.5	-0.7
전세(전국)	-1.8	-1.3	4.4	5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가격지수 활용
※2020·2021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혼란은 건설업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철환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2021년 국내 건설 수주액이 올해(124조8000억 원)보다 6.1% 감소한 164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설시장에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주택 건설시장이 위축하고 있어서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 부양책이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며 "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2021년 상반기에 건설 부양책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한화건설,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 개발

포레나 주차장·휴게공간 등 우선 적용

한화건설은 주거 브랜드 '포레나'의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포레나 프렌즈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로 구성된다. 8개 캐릭터, 100 여종의 디자인이 다양한 이웃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세대별 남녀와, 키즈, 애완동물로 구성된 캐릭터 이미지는 따로 혹은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건설 측은 "건축의 기본이 되는 원과 기둥 조합을 모티브로 역동적이면서도 친근감 있는 캐릭터를 도출했다"며 "포레나 블루 컬러로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강화한다"고 말했다.

포레나 프렌즈는 입주를 시작하는 '포레나 광고', '포레나 영등포', '포레나 노원' 등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한화건설이 이번 포레나 프렌즈를 개발한 건 새 주거 브랜드 포레나의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화건설이 주거브랜드 포레나의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캐릭터는 포레나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휴게공간, 계단 등 공용공간에 우선 적용된다. 사진제공 한화건설

포레나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휴게공간, 계단 등 공용공간에 우선 적용한다. 무미건조

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물에서 포레나만의 감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올해 포레나 프렌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앞으로 개발되는 포레나 신상품에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건설은 지난해 8월 새 주거 브랜드 포레나를 론칭했다. 이어 포레나 시그니처 디퓨저, 실내 로봇배송, 영유아 손 끼임 방지 안전도어, 포레나 익스테리어 등 상품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용상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올해가 포레나를 알리는 해였다면, 내년은 포레나 상품 경쟁력을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포레나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251일 만에 재수감된 MB “진실 가둘 수 없다”

동부구치소 4평 독방 수감... 남은 수형기간 약 16년

횡령,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약 15분 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한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다만 강훈 변호사를 통해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후 2시 30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동부구치소 독거실



이송됐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13.07㎡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텔레비전과 매트리스 등 침구,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등이 갖춰져 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국민의 힘 장제원(오른쪽 세번째) 의원과 권성동 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례에 따라 전담 교도관이 지정된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

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회사이던 다스 회사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인정액을 94억 원 늘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29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HDC현산 ‘건보료 감액’ 공사대금 12억 청구소송 패소

대법 “서울시, 대금정산 정당”

HDC현대산업개발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감액한 11억여 원의 공사비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8년 공동수급체를 꾸려 정부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공사가 끝난 뒤 서울시는 건

보보험료 등을 정산해 11억8900여만 원을 감액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가 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상, 법률상 근거 없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감액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재판에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

료를 정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공공건설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모두 내가 진범”

‘8차 사건’ 재심서 증인 출석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여(53) 씨의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저지른 14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자백한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도 했다.

그는 “사건이 영원히 묻힐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다”며 “당시 현장 은폐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방 경찰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는 희끗희끗한 짧은 스포츠머리에 청록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얼굴 곳곳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있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에 불과하다며 활영을 불허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재심 청구인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이춘재를 바라봤다. 김종용 기자 deep@

재미 공감 위로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포스트 코로나 준비” 방역·민생안정 집중

서울시 내년 예산안 첫 40조 돌파

‘S-방역’ 유지 강화에 3146억 일자리 창출·취약층 지원 7조 ‘부동산 공시가 올라 세금 늘 것’

서울시의 예산안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120억 원 증액한 40조479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예산을 늘렸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재정건전성은 큰 우려가 없다”며 “행정안전부의 관리 기준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이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방역 없인 경제도 없다”=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인 ‘S-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3146억 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 개발 지원과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2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시스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58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 병상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한다. 인프라 확충에도 92억 원을 편성했다.

하루 1000만 명 이상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 원을 편성했다.

◇“불황 극복·민생경제 회복에 7조 원”=7조 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일자리 예산 2조1576억 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2조735억 원)·39

만 2000개)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특히 문턱이 높아져 취업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256억 원을 편성했다.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만7000명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121억 원, 코로나19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도 4952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를 위해 5604억 원 투자”=서울시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년층을 위해 5604억 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을 상암 DMC에 구축·운영하는데 22억 원을 투입한다. G밸리에는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과 운영에 21억 원, 동대문에는 패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증액된 3376억 원을 배정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마곡지구-한강’ 자전거길 개통

서울식물원 인근 총 790m 고덕·위례 등도 연결 계획

마곡지구~한강 자전거전용도로 노선도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총 길이 790m, 폭 3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생활권 자전거 인프라가 총망라된 마곡지구와 서울의 대표 자전거 간선망인 한강 자전거도로로 간접근성을 강화해 레저용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마곡에서 한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인근 방화동, 가양동을 거쳐 가거나 보행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마곡-한강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식물원 습지공원 인근의 양천로47길을 따라 편측 양방향으로 설치됐다. 차도·보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길 안내를 위한 표지판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태양열 LED 표지병 등도 갖췄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위례지구 등 다른 자전거

특화지구와 자전거 간선도로 간 연결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다.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통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연결성도 강화해 시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시행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생활권 자전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마곡지구에서 서울의 대표 자전거 간선도로인 한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자전거길이 열렸다”며 “단절구간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전거 네트워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구로구, 신도림·고척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 구로구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2곳을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진행되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사업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로구는 기존 구로 1·2·3·5동, 고척1동, 개봉3동, 천왕동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7개소 외에 신도림동과 고척2동에 추가로 센터를 개소하면서 총 9개의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도림동 키움센터는 신도림로 20에, 고척2동 키움센터는 중앙로

15길 80에 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는 숙제 봐주기, 학원 챙겨 보내기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과 독서,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돌봄 공백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돌봄도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우리동네 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강남구, 1년간 직원 5명 늘린 中企에 인센티브

서울 강남구가 ‘2020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우수기업 20개를 선정해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강남구는 이달 30일까지 참여 중소기업

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 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 있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

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상시근로자 30인~299인) 기업과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2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엘피바이오



신차 샀는데 한물간 디자인? 낭패 안보려면...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폴모델 체인지 모델로 출시한 3세대 'K5.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중형세단 판매 1위에 올랐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라이프 사이클'을 아시나요

"세상에... 7% 할인도 해주는데 전시차라고 20만 원을 더 깎아준대네요. 또 뭐였더라 지붕에 뭐가 떨어져서 '콧' 짝한 상처가 있는 차인데 그 비용을 고려해 80만 원을 더 할인해준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기아차 스포티지를 마음에 담아뒀던 직장인 A씨.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견적서를 들고 기자에게 달려왔다. 영업소에 들러 이런저런 혜택을 뵈아보니 할인 폭이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했다.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기세였다.

먼저 그녀에게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그리고 용도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되물었다. 역세권에 거주하는 그녀는 출퇴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 '솔로 캠핑' 용으로 적당한 SUV를 고르는 중이었다. 그녀가 내밀었던 견적서를 조용히 되돌려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신차교체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란 내년 초, 기아차는 스포티지 신차를 내놓는다. 5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현재 팔리고 있는 모델의 엔진과 변속기 대부분을 유지하는 반면, 겉모습을 확연하게 바꾼다. 내장재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차에 담길 예정이다.

이를 눈치챈 똑똑한 가장 고객들은 이미 대기수요로 이동했다. 최근 스포티지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자동차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에게 신차를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후속 모델 출시를 앞두고 스포티지 판매가 하락하자 기아차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을 선보이는 셈이다.

이처럼 완성차 제조사들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신차를 내놓는다. 이른바 '폴모델 체인지(세대변경)'다. 스포티지는 2010년에 3세대가, 2015년에 4세대를 공개했다. 5세대가 등장할 때가 된 셈이다.

자동차를 새로 개발해 내놓으면 이른바 '신차효과'에 힘입어 판매가 치솟는다. 관건은 이런 인기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다. 반짝인기에 그치는 차가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인기를 끄는 차도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인기를 끄는 차가 당연히 유리하다. 이를 위해 경쟁력은 필수다. 제품 교체 주기, 이른바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5~7년마다 디자인 바꾸고 최신기술 탑재 '폴모델 체인지' 교체 앞두고 수백만원 할인행사... 1년 지나면 '구형 모델' 수입 중고차 살 때도 모델 변경시점·후속모델 등 따져봐야

이런 신차 교체 주기는 주요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산 중형형차의 경우 북미시장이 주요 무대다. 일본 경쟁사와 맞서야 하는 만큼, 나아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겨냥해야 하는 만큼 발 빠르게 새로운 유행과 흐름을 신차에 도입해야 한다. 5년마다 신차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실제로 현대차 엘란트라(1990년)→아반떼 J2(1995년)→아반떼 XD(2000년)→아반떼 HD(2005년)→아반떼 MD(2010년)→아반떼 AD(2015년)→아반떼 CN7(2020년) 순으로 등장했다.

이보다 경쟁이 덜 치열한 쏘나타급의 중형차는 제품 교체 주기가 이보다 소폭 길다. 현대차 중형 SUV 쏘렌토는 7년마다 신차를 내놓기도 한다.

결국, 지금 현재 팔리는 차가 언제 출시됐는지 알아보면 다음 신차 출시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페이스 리프트'는 화끈하게=1990년대 초, 유럽과 일본 차의 세대 변경은 매 7

년이었다. 7년마다 신차를 내놓고 그 중간 기점, 예컨대 약 3년 반이 지날 무렵 소폭의 변화를 준 이른바 '마이너 체인지'를 내놓았다. 그리고 매년 디자인 일부를 바꾼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는 했다.

2000년대 들어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대 변경 주기가 4~5년으로 축소됐다. 발 빠르게 최신 유행을 신차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다. 경쟁이 거세졌고, 신차 개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변경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모델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른바 마이너 체인지가 사라졌다. 라이프 사이클 중간 기점에서 앞뒤 모습과 동력장치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이를 '페이스 리프트'라고 부른다.

나아가 페이스 리프트의 변화 폭도 확대하는 추세다. 소폭의 디자인 변화에 머물렀던 이전과 달리 전혀 다른 신차로 여겨질 만큼, 화끈하게 변화하는 추세다.

◇중고차 살 때도 신차 주기 알아야=신차 출시 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게 신차 구매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알아놓으면 유리하다. 특히 수입차라면 더욱 그렇다.

중고 자동차의 시세는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형성된다. 3년 또는 6년 주기의 신차 할부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잔존가치'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3년 뒤 잔존가치가 50% 수준이다. 리스나 할부 프로그램의 조건을 잘 살펴보면 '3년 뒤 잔존가치 50% 보장'이라는 문구가 많다. 할부금융사에서 3년 뒤 차가격의 50%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결국, 3년을 타고도 차 가격이 신차의 50%를 넘는다면 인기 차, 반대로 50% 이하로 떨어졌다면 그만큼 비인기 차라고 보면 된다.

중고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고를 때에도 신차 출시 시점을 알아두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신차 가격 5000만 원짜리 수입차가 3년 뒤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2500만 원 안팎에서 시세가 결정된다. 다만 해당 차종의 모델 변경 시점, 나아가 후속 모델의 출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

앞서 신차를 샀던 오너가 단종 직전에 이미 1000만 원 넘게 할인을 받았다면, 그 차를 중고차로 살 때는 그만큼을 덜어내고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게 낫다. 이를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junior@

타보니 메르세데스-벤츠 뉴 E 220 d

4년 만에 화끈한 페이스 리프트 선봬 A자형 프론트 그릴 '웅장함+안정감'

메르세데스-벤츠는 어느 시대에서나 변화에 인색했다.

세대 변경에 맞춰 디자인을 바꿀 때도 신중했다. 세대 변경 주기도 긴 편이다. 7년마다 완전변경 모델을 내놓고 그 중간 기점(약 3.5년)에 맞춰 마이너 체인지, 이른바 '뉴 제너레이션'을 선보였다.

2020년, 이런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런 굴레가 깨졌다. 2016년 등장한 10세대 E-클래스는 지난달 국내에 페이스 리프트를 선보였다. 벤츠답지 않게 앞뒤 모습에 과감한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다.

먼저 V자 형태의 프론트 그릴은 안정적인 A자 형태로 변했다. 이전 모습이 날렵했다면, 새 모델은 한결 웅장하면서 안정감 있는 분위기다. 실제 바라봤을 때 더 안정감 있고 육중하며 공격적인 이미

최고 194마력 '2.0 디젤 엔진' 배기량 줄이고 출력 끌어올려 9단 변속, 오르막도 경쾌하게 AR 내비 등 첨단장비도 추가

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실내 배열은 이전과 다를 게 없다. 다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다양한 첨단 장비로 채웠다. 가장 먼저 '더블랙' 타입의 새로운 스티어링 휠(운전대)이 눈길을 끈다. 3스포크 타입을 기본으로 좌우 스포크를 위아래 이중으로 나눴다. 윗급 S-클래스에도 이 방식이 쓰인다. 멋들어진 운전대 위에는 레벨 2.5 수준의 자율

주행보조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조작부를 심었다.

시승차는 직렬 4기통 2.0 디젤 엔진을 얹은 E 220 d다. 여기에 9단 변속기와 벤츠 고유의 네 바퀴 굴림 시스템인 4매틱을 맞물렸다.

서울 도심에서 경기도 포천을 오고가는 왕복 100km 시승 구간에서는 넘치는 펀치력을 마음껏 뽐내었다.

최고출력 194마력을 내는 2.0 디젤은 이전의 2.2 디젤 엔진(최고출력 170마력)을 대신한다. 배기량을 줄였으며 출력을 끌어올린 엔진이다. 이전보다 배기량을 줄이면서 엔진 스트로크(피스톤의 상하운동 범위)가 줄었다. 자연스럽게 회전까지 쉽게 솟구치고 회전 질감도 부드러워졌다. 좀 더 높은 회전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9단 변속기 역시 디젤 엔진의 제한적인 회전수를 알차게 나눠준다. 제법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낮은 회전수로 경쾌하게 치고 달리는 모습이 디젤의 매력 그대로다. 회전수를 낮게 쓰는 만큼, 차안으로 스며드는 디젤 특유의 소음도 적은 편이다.

새 모델은 다양한 첨단 장비도 가득

었다. 정속주행 때는 전방 도로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자동으로 인식, 스스로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기능도 달렸다.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비치는 도로 화면 위에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처럼 새 E-클래스를 통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아시아 유일!! 국내 최초!! DNA 혈통분석 서비스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인 이라도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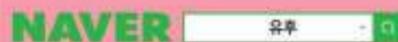
유후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EDGC)에서 개발한
DNA 분석 서비스로서
민족 특이적인 유전정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분석해
개인의 유전적 조상 계보를 알려줍니다.
국내 전체 유전체 기업 중 유전자 혈통 분석이 가능한 기업은 EDGC가 유일합니다.

나의 DNA와 6대륙 22개 인종 95개 국가 인종의 DNA와 비교합니다.
나의 부계 7개 그룹, 모계 12개 그룹의 유전적 혈족을 알 수 있습니다.
30억 쌍 DNA 염기서열 기반 70만여 개의 핵심 유전자 빅데이터의 결정체입니다.



2020 레드닷 어워드 수상
Designed by B-for Brand
www.b-forbrand.com

제품상담 : 032-713-2128
구매문의 : www.youwho.com



Cell-free DNA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EDGC)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토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Cell-free DNA(세포 유리 DNA) 분석기술 기반,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정쟁 국감” 비판 속 송곳질의로 ‘정책 국감’ 모범

‘KO머신·효자손’ 별칭 얻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역화폐·새마을금고 등 친서민 이슈 위주 정책 허점 짚어 준비자료만 340쪽...증인쪽 반박보다 공감·동의 이끌어내

‘KO 머신’, ‘사이다’, ‘효자손’...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붙여진 별칭들이다. 증인들이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번 국감은 ‘추미애 장관-유평머스’ 등의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국감 본래 취지인 ‘정책 국감’을 깨끗하게 밀고 나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무려 340페이지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준비했으며 △지역화폐 △긴급재난문자 △새마을금고 운영 등 친서민적 이슈 위주로 정책의 허점을 제대로 짚어냈다는 평가다.

우선 국감 초반부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진영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연신 “검토하겠다”는

동의를 끌어냈다.

박 의원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막대한 예산 7000억 원가량 쓰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효과가 떨어지며 그 어떤 나라도 중앙정부가 나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전국 1450개의 전통시장을 온라인화시켜 주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에 역력이 없는 가난한 시장을 위해 애초 예산인 5분의 1가량인 1500억 원만 투자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권 들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공무원과 이에 따른 연간 인건비(60조 원)를 지적하며 “일 안 하는 공무원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을 공개했으며, 방만한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업추비 사용은 상당수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이 사용 목적, 시간대, 장소 등을 허위 보고하며 한번에 수백만 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이 같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김세환 중앙선거관 사무총장으로부터 “즉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2000만 명의 회원을 대표해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자회사가 받은 수수료 문제(공정거래법 위반), 중앙회 비대화, 농협·수협·신협(금감원)과 달리 새마을금고 금융감독기관이 중앙회인 점, 그에 따른 금고별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청 경제투자실장 등 약 7년간 ‘경기도통’으로 활동해 온 박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저격수가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임기(2년 1개월) 동안 집행한 정책 홍보비가 250억 원을 초과했고 이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2년간 홍보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타임’지 광고에 1억 원의 광고비를 사용해 논란이 된 점도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언론 보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대에 재난문자 발송을 지양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성민정 교수, 한국PR학회 회장 취임

성민정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한국 PR학회 제22대 학회장으로 6일 취임한다.



성민정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 PR학 석사학위, 매릴랜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PR학회 부회장, 한국PR협회 연구이사, 중앙대학교 광고PR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회 전문가그룹 등으로 활동했다.

성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취임식은 6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하는 한국PR학회 2020 후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안국약품, 유창수·김상욱 이사 영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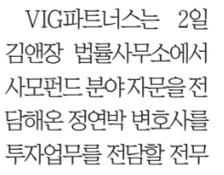
안국약품은 2030 뉴비전 달성을 위해 품질사업부장에 유창수(왼쪽 사진) 이사, 신약연구실장에 김상욱(오른쪽) 이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유창수 이사는 약사 면허 소지자로 중앙대학교 약학 학·석사 과정을 마친 후 박사학위 취득 예정이며 한국콜마, 영진약품, 신풍제약 등에서 품질 및 제조관리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했다.

김상욱 이사는 전북대학교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친 후 성균관대학교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미약품, 엘지생명과학, 삼아제약 등에서 연구소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제제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상업화까지 진행했다.

유혜은 기자 euna@

VIG파트너스, 정연박 전무 영입



VIG파트너스는 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사모펀드 분야 전문을 전담하는 정연박 변호사를 투자법무를 전담할 전무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5기이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이기도 한 정 전무는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VIG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사모펀드들의 펀드 결성, 법률 실사,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등 업무 전 분야와 관련된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0년 The Asia Legal Awards에서 ‘사모펀드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웰컴저축銀 ‘꿈테크 시즌2’ 주인공은 의족골퍼 한정원 씨

웰컴저축은행이 두 번째 꿈테크 프로젝트 ‘무쇠다리 로켓걸’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 씨가 첫 꿈테크 프로젝트 ‘런포드림(Run for dream)’으로 그리스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홀로 마라톤 풀 코스를 달리는 꿈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올해는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의족 여성 골퍼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무쇠다리 로켓걸의 주인공은 한정원(사진) 씨다. 교통사고로 허벅지 아래 왼쪽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이어 ‘무쇠다리 로켓걸’ 프로젝트 시작 KLPGA 준회원 테스트 통과 목표

리를 잃은 그녀의 꿈은 정상급 프로선수들과의 경쟁당당한 라운더이다. 이를 위해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준회원 선발에 도전한다. 더 나아가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입상에 꿈꾸고 있다.

현재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그녀는 사고 후 재활활동을 통해 골퍼를 접했

다. 독학으로 골퍼를 배운 그녀는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지로 실력을 키웠고 2018년 세계장애인골프선수권대회 우승을 포함해 여러 장애인 골프 대회에 참가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웰컴저축은행은 그녀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웰컴드림스즈’ 제작에 나선다. 웰컴드림스즈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른 압력변화를 세세히 기록할 수 있게 설계된다. 독학으로 배운 그녀의 골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웰컴저축은행 소속 프로골퍼 선수들의 수업도 진행될 예정이



다. 데이터 분석과 프로선수의 레슨을 통해 그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력을 향상시켜 KLPGA 준회원 선발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번 꿈테크 프로젝트 무쇠다리 로켓걸 한정원 씨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 ‘웰컴투판테크’를 통해 다양한 영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 부위원장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손병두 부위원장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다. 뉴시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임식 갖고 30년 공직생활 마감 “고비마다 브레이크와 액셀 잘 밟아달라” 당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년 6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손 부위원장이 떠난 자리는 도규상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신한다.

손 부위원장은 2일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30년 6개월의 공직을 마감하는 날”이라며 “기재부에서 금융위로 넘어온 지난 7년 반은 공직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는 고통의 골을 더 깊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 직원의 노고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흘러가게 하고 일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의 권익도 금융위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부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의 맡은 역할은

약천후 속에서 운전하는 드라이버와 같다”며 “브레이크와 액셀을 고비마다 잘 밟아달라. 운전대는 남과 나눠서 잡을 수 없다. 책임지는 자세, 균형감각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이다.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 중재로서 역할 연기에 충실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맡은 역할, 관련 기관 중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에서 하루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께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박찬신 기자 jinsan@

인사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대전청사관리소장 정윤환
-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최신평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모두순 △운영지원과장 정재욱 △차립지원과장 김혜인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실장급) 전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관섭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 임명 △분석과학연구본부장 권경훈 △연구장비개발·운영본부장 김현식 △지역분석과학본부장 윤혜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박찬수(정책본부장 겸직) △분석과학연구본부 바이오융합연구부장 홍관수 △연구장비개발·운영본부 연구장비개발부장 서정

- 주 △지역분석과학본부 부산센터장 윤장희 △ 대구센터장 김대경 △ 서울서부센터장 방은정 △경영본부 기획부장(직무대리) 전상미 △ 행정부장 김영규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비확산본부 안전조치실장 김민수 △ 수출입통제실장 양승호 △핵안보본부 사이버보안실장 이정호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장 김상순
- ◆KR투자증권 ◇멀티에셋본부 △이사·본부장 박상훈 △상무 장중식
- ◆헤럴드 △전무이사 겸 마케팅본부장 전장협 △헤럴드경제 논설위원 문호진
- ◆아주경제 △논설실장겸 편집 총괄 에디터 이상국 △편집부장 이낙규
- ◆인더뉴스 △편집국장 겸 편집인(부사장) 박기수
- ◆굿모닝경제 △증권부장 최재영

개그맨 박지선 자택서 사망 모친과 함께 극단적 선택 추정

개그맨 박지선(36) 씨가 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 씨의 부친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결과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 씨의 모친은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부음

- ▲고재인 씨 별세, 고완석·찬석(회사원)·영석(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씨 부친상, 김형근(AKK자문위원 KPCA기술위원장)·송중수(세종대산학협력교수) 씨 장인상, 송인훈(예원학교 강사) 씨 시부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 ▲윤이중 씨 별세, 윤석현(IMF 몽골주 재대표)·유선(주부)·석우(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 씨 부친상, 이을수(토마스리서치 대표) 씨 장인상 =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2-3410-3153
- ▲정순규 씨 별세, 김석진(학교법인 경덕학원 이사장) 씨 모친상 = 2일, 충남대

- 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42-280-8181-2
- ▲이경재 씨 별세, 박종희(전 국회의원)·춘희·영희·영실(숙명여대 중앙도서관팀장)·은희 씨 모친상, 이주원(전 LG이노텍 부사장)·신원범·이재만(화정중학교 교사)·이찬희(은성의료재단 경영본부장) 씨 장모상 = 2일,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31-219-6654
- ▲이성렬(전 대법관·12대 국회의원·초대 헌법재판관) 씨 별세, 용영자 씨 남편상, 이수영·희경·수향·승영·송희 씨 부친상, 라재규(법무법인 대동 변호사)·염용철(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김상수(순천대 교수) 씨 장인상, 염준범(창원지검 검사) 씨 외조부상 = 2일, 광주 남문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62-675-5000

임혁 칼럼



브라보마이라이프 대표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이목지신〉

정권 초 속칭 '문빠'들 사이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는 응원문구(?)가 등장했다. 처음 들었을 땐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진다. 이번에 당헌 개정을 지지한 86.7%라는 숫자도 그들의 합창 소리처럼 들린다.

해마다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그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작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였다. 한 몸이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새의 이름이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는 것도 모르고 서로 이기려고만 드는 한국 사회를 닮았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목지신(移木之信)'을 추천한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상양(商鞅)이 남긴 고사다. 그는 재상에 오른 뒤 도성 남문에 나무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는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이에게 금화 50개를 주겠다"고 선포했다. 터무니없이 큰 상금에 다들 믿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나서서 나무를 옮겼다. 상양은 약속대로 금화를 줬고 그 뒤로 백성들은 그가 만들어내는 법령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하루는 진 효공의 태자가 법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상양은 법에 따라 태자의 스승에게 경형(鯨刑, 이마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내렸다. 그 스승은 태자의 숙부, 즉 효공의

동생이었다. 상벌을 모두 법대로 엄격히 집행한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감잡았을 것이다. 왜 이목지신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하는지. 이 정권이 스스로 공언했던 바를 반복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96조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문 대표는 고성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치러지는 재선거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라고 공박했다.

이번에 서울·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은 전직 시장들의 성 추문 때문이다. 따라서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공천을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치러진 당원 투표에서는 86.7%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짜고 치기'식 투표로 공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런 일련의 결정에 대해 "후보를 내고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는 "기존 당헌은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막은 과잉금지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화 '실미도' 속의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외침이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

사실 정부와 여당이 말을 뒤집은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소위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도 그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 전임·논문 표절·탈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 하지만 집권 후 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11월 '고위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새로 발표한다. 5대 기준에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를 추가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인사에서 배제하도록 해 더 느슨해졌다. 그나마도 최근 서울 국방부 장관의 사례(위장전입)가 보여주듯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좀 더 가까운 사례로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반복됐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이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정권 초 속칭 '문빠'들 사이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는 응원문구(?)가 등장했다. 처음 들었을 땐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진다. 이번에 당헌 개정을 지지한 86.7%라는 숫자도 그들의 합창 소리처럼 들린다. 문빠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이목지신의 자세!'라고. lim5427@

정책발언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치유로 코로나 우울 극복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기력증과 불안감 등 소위 '코로나 우울'이라고 불리는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벌, 백사장, 해양생물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해양치유가 바로 그것이다. 2017년부터 2년간 전국 8개 의과대학과 함께 추진한 해양치유 자원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바닷바람, 파도소리, 해양경관은 스트레스나 불면증 해소, 귀울림 현상 완화 등에 효과적이고, 갯벌, 소금, 바닷물은 각종 염증이나 통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다. 해양수산부는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쉽 없이 헌신해온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국민 영웅들을 대

상으로 하는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한 사람 중 85%가 매우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한다.

일찍이 서구권에서는 바다가 가진 '치유의 힘'에 주목해 해양치유를 발전시켜 왔다. 해양치유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독일은 심장, 호흡계, 피부 등 각각의 질환에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리조트만 350개가 넘고, 의료보험까지 적용돼 매년 900만 명 이상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으로 해양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는 해양치유 전문기관인 '프랑스 탈라스(France Thalasso)'를 통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으로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양치유를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해양치유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이 해양치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2017년부터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우수한 해양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해양치유 자원의 유용성,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월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제는 해양치유 자원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활용가능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 자원 환경을 갖춘 지역을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2024년까지 총 1354억 원을 투입해 협력 지자체에 총 4개소의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해 해양치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치유거점이 조성되면 해양생물, 갯벌, 염지하수 등 각 지자

체의 특색 있는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 재활치료, 피로미용 및 근·골격계 질환 완화,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치유 관련 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을 통해 해양치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양치유 서비스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100만 명 이상이 해양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경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가진 우리 바다는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 서남해안 갯벌을 비롯한 우수한 해양치유 자원들을 해양치유 상품으로 잘 만들어 우리 국민이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양치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드워드 헬릿 카머런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영국의 언론인이자 역사학자. 20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그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위기의 20년' '서구세계에서의 소비에트 충격' 등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92~1982.

☆ 고사성어 / 춘추필법(春秋筆法)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사필(史筆)의 준엄한 논법. 춘추(春秋)는 노(魯)나라 은공(隱公)에서 애공(哀公)까지 12대 242년의 연대기. 공자(孔子)가 후세 존왕(尊王)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집필했다. 그는 사건을 기록하는 기사(記事),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正名), 칭찬과 비난을 엄격히 하는 포폄(褒貶)의 원칙을 세워 기록했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준엄하게 기록하는 논법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

☆ 시사상식/리치 노마드(Rich Nomad) 무거운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떠나는 부유한 유목민. 절세 망명족이라고도 한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새버린이 미국을 떠나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 스웨덴 대표기업 이케아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국민차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영국으로 각각 본사를 옮겼다.

☆ 속담 / 기와 한 장 아껴서 대들보 썩힌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보는 일을 비유한다.

☆ 유머 / 그때부터 아내의 말이 없다 종갓집 종부인 내아내는 추석 내내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했다. 어머니에게 화가 그녀는 어머니가 썩은 음식을 봉지째 휴게소에 버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애썼다. 작은애 눈치챌까 봐 검은 봉투에 300만 원 넣었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웃도 사 입어라. 손자들 좋은 거 하나씩 사줘라. 품삯으로 받은 돈이다. 담에 벌면 또 주마." 밤을 새워 되돌아간 휴게소 쓰레기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미선 유통바이오부/only@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바이오株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길고 험난한 길을 함께 가는 투자자들의 꿈과 희망이 빛나는 실적으로 되갚아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투자금은 날린 개미들은 한탕에 베풀한 무모한 사람이 된다.

신약 개발은 성공보다 실패가 압도적으

로 많다. 예기치 못하게 임상이 실패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약 개발의 실력은 쌓이기 마련이다. 임상 실패 뉴스를 기업에 절대적 위험 요인으로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배은망덕은 다른 문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언한 계획과 달리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 그 어느 업종보다 중요하네, 우리가 본 업계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임상 실패 소식을 대주주가 먼저 알고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고, 의약품 주요 구성 성분을 허위 기재한 뒤 임상 승인과 시판 허가를 받아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 기기도 했다.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투자자들의 자금을 토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바이오 투자자들이 무모한 투자자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감이 더 필요해 보인다.

민생과 정치는 따로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은 경제 이슈에 대부분 할애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43번이나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 협조도 구했다. 국민의힘이 '슈퍼 예산' 심사에서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민주당에서는 "예산안마저 정쟁의 불모로 삼겠다는 얘기다"(김태년 원내대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등 경제(민생)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술 더 떴다. 이날 KBS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며 과거 정권 탓을 했다.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실 인식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김 장관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으로 일정부분 전세 공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똑같이 (전세) 수요도 줄었다. 양쪽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심각성의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시장이, 정치권이, 언론이 부동산 투기와 전세난을 부추킨 것 아니냐는 불편한 속내로 비친다. 이쯤 되면 "4년째 들고 있는 돌림노래"라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평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생각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21대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시끄러웠다. 대규모 펀드 사기에 연루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여론을 덮친 것.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9월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은 지금도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급기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수사의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했다. 비리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검찰과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수사를 윤 총장 수사 국면으로 덮으려는 의도, '윤석열 찍어내기'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당이 자신의 위기를 '가짜 뉴스' '민생(경제) 대 정치'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야당이 경제 살리기의 휘방꾼이라는 식의 논리는 여당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때마다 써먹는 단골 메뉴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 세일즈'가 현 정부에서 '공정 세일즈'로 간판만 바꿔

단 모습이다. 과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정'을 앞세울 자격이 있는지는 참으로 회의적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정 타령은 공허한 메아리란 느낌마저 든다. 악화하는 취업난, 청년 실업의 증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계부채, 경기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증가 등 서민들의 삶의 붕괴는 각종 통계가 말해 준다. 문 대통령이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로 든 쪽방촌 문제나 택배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전·월세난 등도 따지고 보면 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한다.

더욱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생을 정치의 대적점에 놓는 것부터 허구적이고 기만적이다. 민생과 정치는 결코 대립항이 아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관계도 아니다. 정치와 민생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치는 좋은 민생의 선결 요건이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식의 논리는 국민의 정치적 혐오감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술책일 뿐이다. 오히려 민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의미를 국한해 볼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에서 거저된 '민생 신화'를 추방하고 대신에 제대로 된 정치적 격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kmh@

하유미의 고공비행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목표만 정한 '넷제로' 선언

며 비난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의 감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2050 넷제로'를 목표로 한 법제화를 완료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어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도 관련 법을 만들었다. 이 외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독일, 스위스 등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세웠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글썫하다.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동추적(CAT)은 2016년 한국을 '기후약당'으로 꼽았다. 그런데도 한국은 2018년 사상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했다.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0.4%)보다 7배 높았다. 2년간 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오죽하면 CAT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질타했을까. 게다가 4년 전 우리와 함께 기후약당으로 지목됐던 뉴질랜드가 철저한 탄소 감축을 위한 법적 장

치를 마련한 것과 대조된다.

한마디로 '넷제로'는 딴 세상 얘기였다. 그러다 최근 들어 정부가 갑자기 넷제로를 처음으로 선언했다. 반가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넷제로 선언에 대한 국제연합(유엔·UN)의 답변이 참 씁쓸하다. 유엔은 당시 논평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실행될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점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안 그래도 늦은 깨달음, 거기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는 의미다. 최근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는 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정부는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키워드는 없다. 하루빨리 '기후약당', '탄소배출 세계 7위', '재생에너지 저수준', '기후변화대응 순위 꼴찌' 등 한국의 슬픈 꼬리표를 떼졌으면 한다.

jscs508@

시설

미국 대선 이후 전략적 선택의 과제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시작된다. 결과의 윤곽은 4일 나온다.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누가 당선되는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한반도 정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변화의 폭은 당연히 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집권 2기 전략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율로 많이 앞서 있지만 트럼프 후보의 추격도 거세다.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몇몇 경합지역 투표 결과가 변수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과 함께, 북한 핵 및 동맹에 대한 접근방식 등 안보전략의 방향을 가장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통상문제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일방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과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고립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맞선 바이든 후보의 경우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탈(脫)중국을 위해 기업과 무역, 기술, 안보를 연계하는 통상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인데 미중 갈등은 더 커지는 구도다. 최대의 리스크

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대중 관계와 중국 의존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의 북핵 전략과 우리와의 안보 동맹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으로 동맹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해도,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미국에 대한 북의 핵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쪽이다. 바이든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외교를 천명한다.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으면서 북이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불확실성만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분명한 건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경제와 통상의 미중 충돌구도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최대 난제(難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어떤 대비책과 수단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미국 대선 이후 변화에 대응해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통의 이해를 조율하는 외교력이 미흡지 않다. 당장에는 개표지연으로 당선자 확정 시점이 늦어지고,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가 벌어져 국제 금융·외환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시장 변동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허, 특!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1959년에 미국 반도체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 킬비가 반도체 집적회로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몇 달 뒤,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로버트 노이스도 반도체 집적회로로 특허출원을 하더니 1961년에 먼저 등록받았다. 1964년이 되어서야 특허등록증을 받게 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나중 출원한 페어차일드의 발명에 주어진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넓은 미국 땅에서 누가 먼저 특허청에 왔는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최초 발명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했다. 그 수단은 연구노트였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실험결과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발명자는 그 내용을 정리해 두기 때문이다. 연구노트를 비교해 보았더니 발명의 착상 시점도 선출원자인 킬비가 빨랐지만, 양 발명의 기술적 차이도 함께 인정되었다. 결국 두 특허 모두 등록되는 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발명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새

로워야 하고 앞선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발명 참여자가 많고 기술이 고도해지면서 이를 따지는 과정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연구노트의 위조 여부까지 가려야 하는 선발명주의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특허권에 독점권을 주는 취지는 발명 공개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므로, 미국 빼고는 대부분 특허출원을 통해 먼저 공개한 사람을 보호하는 선출원제도 국가였다. 결국 미국도 2013년부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바꾸었다.

그렇다고 연구노트의 의미가 덩달아 축소되지는 않는다. 연구자에게는 일기와 같은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모든 연구과제의 성실수행을 연구노트로 확인하겠다는, 권위주의 시절 학교의 일 가장 검사를 연상시킨다. 개정이 필요하다. 문헌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반가워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더 신경 쓰이는 아기 빨래
초보 엄마, 초보 아빠도 걱정하지 않도록
그랑데시^{AI}가 다 맞춰드릴게요

새로운 시작 시^{A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AI}



새로운 시작, 삼성 그랑데^{AI}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용량의류케어 톱큰혜택 2020.11.1 - 2020.11.30

삼성 그랑데^{AI}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및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동사구매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70만 상당 혜택)

* 20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드럼세탁기 품목 신고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 그랑데^{AI})은 울인원 컨트를 모델에 한함 * 일부모델 제외 * 에어드레서 대용량 리얼블랙(DF10T9301KG) 삼성닷컴 혜택기준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상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가전을 나답게.

삼성·1차·2차·3차 협력회사 공정거래 협약식

2020.9.28 (일)    SAMSUNG

